

#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Values and Childbirth

김나영 · 이지혜 · 김은정 · 김경신

연구보고서 2010-30-4

---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김나영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02-6 93330

## 머리말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미래의 생산가능 인구 및 부양을 증가 등을 우려하여 정부나 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산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어느 수준 이상의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들 대부분은 자녀양육의 비용,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노동력 창출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산업화 된 사회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주체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노동력으로서의 자녀효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양적 측면이 강조되지만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에 따른 자녀효용 감소와 자녀에 대한 질적측면이 강조되어 소자녀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도 이미 소자녀

규범이 형성되는 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 혹은 부부의 ‘가치관’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것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가치관 요인도 출산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사회구성원의 가치 재정립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들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해 주신 대구가톨릭 대학교 문수백 교수님,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님, 고려대학교 홍세희 교수님,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 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혜영 연구위원과 본원의 정경희 연구위원, 신윤정 연구위원, 그리고 연구직업을 도와 준 권혁우 연구보조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목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	12
제2장 가치와 출산관련 가치 .....	15
제1절 가치란 무엇인가 .....	15
제2절 출산관련 의식 .....	19
제3장 선행연구 고찰 .....	53
제4장 저출산 현상 및 정책 현황 .....	61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	61
제2절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 .....	65
제5장 출산관련 의식변화 분석 .....	73
제6장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	83
제1절 경로분석이란 .....	83
제2절 연구모델 구성 .....	84
제3절 분석결과 .....	87

제7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5
부록. 모형의 적합도 및 상관관계 .....	137

표 목차

〈표 4-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 62

〈표 4- 2〉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 64

〈표 5- 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73

〈표 5- 2〉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결혼연령 ..... 74

〈표 5- 3〉 미혼남녀(20~44세)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 75

〈표 5- 4〉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 75

〈표 5- 5〉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 76

〈표 5- 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77

〈표 5- 7〉 기혼여성(20~44세)의 가족내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 78

〈표 5- 8〉 기혼여성(20~44세)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78

〈표 5- 9〉 기혼여성(20~44세)의 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 ... 79

〈표 5-10〉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 80

〈표 6- 1〉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 86

〈표 6- 2〉 분석 대상자의 가치 관련 변수 ..... 87

〈표 6- 3〉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경로계수 ..... 91

〈표 6- 4〉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92

〈표 6- 5〉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92

〈표 6- 6〉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경로계수 ..... 93

〈표 6- 7〉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94

〈표 6- 8〉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94
〈표 6- 9〉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경로계수 .....	97
〈표 6-10〉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97
〈표 6-11〉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97
〈표 6-12〉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경로계수 .....	99
〈표 6-13〉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00
〈표 6-14〉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00
〈표 6-15〉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경로계수 .....	101
〈표 6-16〉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02
〈표 6-17〉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02
〈표 6-18〉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경로계수 .....	103
〈표 6-19〉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04
〈표 6-20〉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04
〈표 6-21〉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경로계수 .....	105
〈표 6-22〉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06
〈표 6-23〉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06
〈표 6-24〉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경로계수 .....	107
〈표 6-25〉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07
〈표 6-26〉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08
〈표 6-27〉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경로계수 .....	109
〈표 6-28〉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09
〈표 6-29〉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10

〈표 6-30〉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경로계수 .....	111
〈표 6-31〉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12
〈표 6-32〉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12
〈표 6-33〉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경로계수 .....	113
〈표 6-34〉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14
〈표 6-35〉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14
〈표 6-36〉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경로계수 .....	115
〈표 6-37〉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	115
〈표 6-38〉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	116

## 그림 목차

[그림 4-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	63
[그림 6- 1] 경로모형 .....	84
[그림 6- 2]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소득수준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0
[그림 6- 3]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1
[그림 6- 4]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3

[그림 6- 5]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교육수준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5
[그림 6- 6]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6
[그림 6- 7]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소득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6
[그림 6- 8]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99
[그림 6- 9]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103
[그림 6-10]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소득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108
[그림 6-11]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소득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	111



# Abstract

Korea has rapidly entered into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t not only decreases productivity in the economy, but also increases the dependency ratio in a societ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many researchers has been examining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suggesting various policies. We do not see, however, a substantial improvement in a birth rate.

It is a time, therefore, to change the way we understand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Although they were considered as labor force in a pre-industrialized society, children are a source of satisfaction or happiness to their parents in an industrialized society. There is relatively plenty of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parents' values. In other words, values of individuals or couples has become a significant factor on childbirth decision-making, and changes of values, obviously, play a considerable role on childbirth.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of values affect childbirth in Korea between 2005 and 2009. We analyze twelve different groups using path analysis with socio-economic factors and value factors. The results reveal that socio-economic factors via value factors give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in unmarried persons' groups. More socio-economic factors affect childbirth via value factors in 2009 than 2005. It means that considering the changes of values is not to be ignored when we discuss on the reason of low fertility, and make

policies for it.

In conclusion, point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policy establishments are that we need 1) a program for adolescents, who are the future of our society, to reestablish their values on population, meaning of family, gender equality, and so on, and 2) a strategy to cultivate the Value of Children(VoC) through campaigns.

#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
  -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sup>1)</sup> 규모는 감소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함.
  - 경제성장은 노동력(L)과 자본(K)의 투입, 그리고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 향상(T)에 의하여 결정됨.
  - 따라서 경제성장 주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의 감소는 자칫 경제성장의 둔화로 연결될 수 있음.
- 기존의 많은 저출산 관련 연구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출산율(저출산)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에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부부의 가치관이 개입된다고 보고 가치관 요소를 고려하였음.
  - 또한, 기존 출산율과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경우(이삼식, 2006), 로지스틱모델과 다중회귀모형으로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와 출산율의 직접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동시에 인구사회학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가 출산관련 의식을 매개로 하여 출산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

1) 15~64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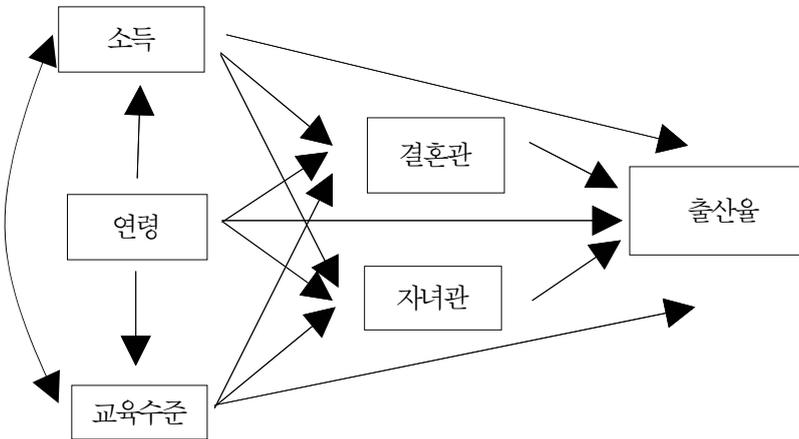
## 2. 연구방법

### □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 ○ 경로분석

- 회귀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인과효과 등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변수 간 상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경로분석은 그러한 상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분석임.
- 구조방정식모형과 다른 점은 관찰변수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잠재 변수가 없음. 즉, 인과적 관계모델의 모든 변수가 관찰변수만으로 구성됨.

[그림 1] 경로분석모형



□ 분석 자료는 2005년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임.

〈표 1〉 분석대상

2005			2009		
기혼전체		X	기혼전체		X
	기혼여성	O		기혼여성	O
	기혼남성	X		기혼남성	X
미혼전체		O	미혼전체		O
	미혼여성	O		미혼여성	O
	미혼남성	O		미혼남성	O

### 3. 연구결과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출산관련 가치관은 출산에 대하여 인과적 효과를 가짐.

- 미혼자의 경우 2005년에 결혼관과 자녀관을 매개로 하여 출산결정에 인과적 효과를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중에서 연령(미혼남성)뿐이었음.
- 하지만 2009년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음.
  - 2005년에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의 인과적 영향이 없었던 미혼여성의 경우 2009년에는 연령의 인과적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혼남성의 경우 모든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관찰변수, 즉, 연령, 교육수준, 소득이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를 출산결정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미혼집단(특히 남성) 가치관변수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이 보다 커졌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한 인

과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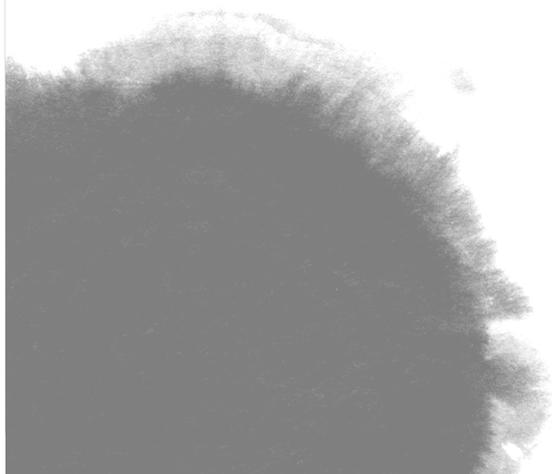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 따라서 결혼관과 자녀관의 출산관련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2005년과 2009년 기간 동안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치관 요인과 가치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4. 정책적 시사점

-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교육을 통하여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을 해야 할 것임.
  - 가치관의 형성은 어린 시절에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에서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비롯하여 성, 결혼, 출산 등 인간생애 전반에 걸친 가치관 확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학년별 혹은 자·고학년을 구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함.
-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전 사회적으로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01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에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에는 2.82명이었으나 3년 후인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0명 보다 낮은 2.06명 수준에 도달한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1997년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후,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보였으며, 2006년(1.12명)과 2007년(1.25명)에 각각 일시적인 상승기조 이후 2008년 1.19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9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낮은 출산율은 2020년에는 소폭 상승한 1.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2030년 이후 1.28명의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유발되는 문제 중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노동력<sup>2)</sup>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이다. 경제성장은 노동력(L)과 자본(K)의 투입, 그리고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 향상(T)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만약 자본투입이 고정되고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마저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노동력의

2)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바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도 초래한다.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중 50-64세 인구 비중은 20.8%이지만 15년 후인 2020년에는 33%로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자칫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저출산 현상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2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많은 사업과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국가들 대부분이 낮은 출산율을 경험해 오고 있다. 2000년 이후 OECD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수준이며, 2008년 (캐나다와 미국의 수치를 제외하고),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1.7명 수준에 진입하였다. 이렇듯 OECD 국가들 전반이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산업화 이전과 이후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노동력 창출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산업화 된 사회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주체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변화된다. 즉,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노동력으로서의 자녀효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양적 측면이 강조되지만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에 따른 자녀효용 감소와 자녀에 대한 질적측면이 강조되어 자녀교육비 등을 포함한 양육비용 증대로 인한 소자녀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녀의 질적측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출산에 대한 결정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부부의 가치관 혹은 심리적 요소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소와 출산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요소가 개인 혹은 부부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 혹은 부부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것은 개인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의해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 규범을 따랐을 때의 이득을 개인의 수준에서 평가하여 행동한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 혹은 부부들의 가치관 변화는 다른 개인 혹은 부부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변화된 개인의 가치관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출산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부부의 가치관의 출산에 대한 인과적 효과에 대한 규명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과학적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현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고 특정한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계수 (2007)는 인과관계 연구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증거 획득의 절차로 보고,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고려하거나, 원인변수들과 결과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들 이외의 외생 변수들을 통제하여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그 크기를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인은 예정된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겠고, 이러한 원인이 인과적 사고를 통해서 발생시킨 개념의 결과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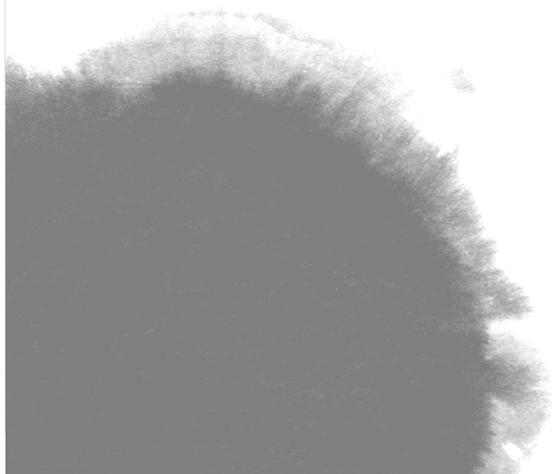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요소와 함께 출산관련 의식(가치)에 대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며, 그들간의 단순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저출산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여 향후의 저출산 극복 정책수립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가치와 출산관련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해 보고, 3장에서는 가치관련 연구 및 출산관련 가치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5장에서는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005, 2009)’를 통하여 출산관련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사용한 경로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먼저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출산관련 가치와 출산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6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관련 의식과 출산율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과 함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 02

## 가치와 출신관련 가치





## 제2장 가치와 출산관련 가치

### 제1절 가치란 무엇인가

출산관련 인식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본 절에서는 ‘가치’의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자 한다. ‘가치’라는 것은 다분히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동의 기저(基底)에는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유지하여 사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혹은 규범이 있다. 가치론적 사회 시스템의 이해에 따르면, “사회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도덕적 공동체(moral community)이며, 그 구성원들은 공유된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범서, 1992).

Max Weber는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그것들에 근거한 의미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그의 주관적 삶(subjective life)에 의해서 세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외부의 현실이 그의 주관적 가치와 일치할 때 개인은 세계를 ‘의미’있게 발견한다”고 한다. Weber가 말하는 ‘의미’는 “인식에 근거한 행동의 계획인 동시에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행동을 하고야 말겠다는 ‘전념의 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결혼하기를 결정하고 출산을 결정하는 등의 행동은 의미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Weber에 따르면, “행동은 목적(purpose) 혹은 목표(goal)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과 다른데, 결국 인간의 행동이

향하고 있는 목적 혹은 목표가 바로 가치인 것이다”(고범서, 1992).

Emile Durkheim은 “가치와 현실은 이분적인 것이 아닌 함께 인간에게 작용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상호의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는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질서에서 더 나아가 그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가치지향성 역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범서, 1992).

가치는 사회적 현실이나 여건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현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통해서 창조되어 현실, 즉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형성한다. 이와 관련 하여 Durkheim은 “사회는 동시에 이념을 창조하지 않고는 자신을 창조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재창조하지도 않는다”고 하였고, B.F. Skinner는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가치론적 사회관은 인간을 본질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성되고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와 이념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였다 (고범서, 1992).

한규석(2002)에 따르면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지녔는가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 하고, 어떠한 철학을 지니고 생활하는지를 알려주며, 다양한 상황에서 변화되는 행동에 놓여 있는 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태도’가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예측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면 ‘가치관’은 그 문화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추상적인 이념, 행동철학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성원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이 보편적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전통과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Kluckhohn(1951)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행위의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가치라고 전제 하였다. 즉, 가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원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며, 그에 따라 무엇이 타당한 욕망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이상향 같은 추상적인 삶의 철학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 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가치란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고, 한 개인이나 집단을 특징짓는 것이며 개인 또는 집단이 행동의 제반 양식, 수단, 혹은 목표들 중에서 선택할 때 영향을 끼치는 외현적(外顯的) 또는 내재적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가치관을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 대 환경 및 대인관계에 관련되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이라고 규정한다 (Graeber, 2009 재인용).

Rokeach(1973)<sup>3)</sup>는 가치는 “한 특수한 행동양식이나 생활의 목적상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반대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지속적인 신념”이며, 가치체계는 “선호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의 목적 상태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가치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였는데, 가치는 “다소 가변적이지만 비교적 지속적으로 기술적이거나 평가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규정적인 신념<sup>4)</sup>으로 분류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수단과 목적에 대한 인식이며, 어느 정도의 감정 혹은 느낌이고, 행동요소이며, 행동의 약식이나 생활의 목적 상태, 즉 도구적 가치이거나 종착적 가치이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수진 외, 2002 재인용).

Linton(1945)은 가치란 “일련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의 내면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라고 정의한다. Williams는 가치를 “좋다 나쁘다 혹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선호적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한 상황, 사건,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한다(신수진 외, 2002 재인용).

신수진, 최준식(2002)의 정리에 따르면 가치는 동기의 한 측면으로서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판단작용을 수행하고, 지속적, 궁극적이기 때문에 행위

3)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 The Free Press.

4) 규정적 신념은 행위의 수단이나 목표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신념

에 대한 영향력을 광범하게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면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사회심리적 제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는 개념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치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이 되는 구성요인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경험은 개인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 따르면 “적절한 행동의 선택에 관련된 판단기준으로서의 가치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며, 그 주요 공급원은 사회구조와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계 내에 함축된 가치는 사회체계 안에 제도화되고,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사회구조에 반영되지만, 사회체계는 가치보다는 추상화의 정도가 낮은, 보다 특수한 제규칙과 규범에 의해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역시 사회구조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또한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도’는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조직된 정신적, 신경적 구조라는 점에서는 가치와 유사하지만, 개인에의 배타적 귀속성과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선택성이 결여되거나 약하다는 점에서 가치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치는 사회화를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사회현상인 것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 사고(思考)란, 내외부적 자극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상징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의 근원이며 전반을 의식(意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이며 동시에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감정, 견해, 사상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식 작용 속에서 대상에 대한 선호(選好), 좋고 나쁨의 판단이 일어날 때 가치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 개념의 일관된 사고를 가치관이라 하고, 가치관이 행동적이며 결과적 요소를 동반할 때 태도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 및 가치관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중개하는 매개변인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특히 가치관은 태도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보다 내부 심층에 속하는 심리적 성향이다(황응연, 1975). 이러한 가치관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에까지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인간, 어느 상황에서나 극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1998a).

## 제2절 출산관련 의식

출산이 개인의 결심과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행위라 하여도, 그 결심은 개인의 사고와 의식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과거에는 가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생존의 문제였으며 동시에 인간사회 구성원으로서 행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였다. 그러나 출산이 선택의 문제가 되면서 과거의 가치관은 사라졌으며, 회귀하기 어려운 의식 과정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개인적, 집단적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요인이 매개되었는지 종적, 횡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전통으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망해볼 때, 유교에 근거한 의식은 근대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위상을 재정립하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화가 전통에 토대를 둔 내생적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 양식의 급속한 이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만홍, 1999). 따라서 한국 사회는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로 다른 가

치관을 내면화하며 성장한 다양한 세대와 이질적 성이 충돌하면서 많은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이동원, 2002).

더욱이 출산의 가치와 이의 사회적 전수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선택 이전에 미래를 조망하지 못한 국가의 정책적인 오류가 작용하였으며, 근원적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한 우리 사회 모두의 혼란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 대안을 찾는 데 있어 여전히 의식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중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 사회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과거처럼 국가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여러 대안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가는 여전히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자녀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공선희 등(2008)의 연구에서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요인(38.5%)을 들고 있지만, 가치관 변화 등 문화적 요인(34.0%)을 그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어 가치관과 자녀출산의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요인 역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작용이라는 동일한 맥락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은 그 결과나 중요성으로 본다면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에 의해 결정되고 행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탐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 조건이 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사고, 자녀에 대한 가치, 성역할관 등 자녀 양육의 과정적인 변수들, 부모관이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관련 변수들을 통칭하여 가족가치관이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가족가치관 관련 연구들(김경신, 1998b; 김순옥·류점숙, 1984; 김일명, 1989<sup>5)</sup>; 박진숙, 1984; 박혜인, 1990; 옥선화, 1984)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

5) 김일명(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향을 미치는 것을 가족이라고 보고,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족가치관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하였으며, 가족가치관의 하위개념들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서울대국제대학원(2005)의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2002년 ‘가족과 젠더역할의 모듈’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각국의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즉 OECD 9개국(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포르투갈)의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동거에 대한 가치관, 이혼에 대한 가치관, 아동에 대한 가치관, 정책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등 7개 가치관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과 가치의 문제를 탐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영역을 참고로,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부모관/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덧붙여 일과 가족의 갈등에 대한 탐색을 위해 일가족관을 부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를 각 영역별로 탐색함에 있어 첫째로 각 가치 영역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로 전통적 가치관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내재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sup>6)</sup>.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가족가치관의 경향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결혼관

### 가. 개념과 특성

결혼관은 결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먼저 결혼의 필

6) 이 부분은 이정덕·김순옥·박허식·김경신(1999)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함.

요성이나 가치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독신을 선택하거나 만혼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선택 개념으로 보는 의식이 높아진 만큼 결혼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에 의하여 가족이 형성되고 이러한 가족의 형성은 사회구성원의 기본 의무이며 중요 행위이므로, 결혼의 필요성은 지고의 가치를 지녀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선택화되고 있고 그 시기도 현저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혼, 동거혼, 사실혼 등에 의한 출산을 아직도 제도적, 윤리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서 결혼은 출산의 중요한 장(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지배하고 가사를 지휘하며 가족원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이라 한다. 부계확대가족에서 이러한 지위를 점유하는 사람은 최고세대에 속하는 최고연령자인 부이기 때문에 가장을 가부장이라고 한다. 또한 가부장은 가족을 지휘 통솔할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이러한 가부장의 권한을 가부장권이라 한다. 가부장권에는 대표권, 가독권, 재산권, 제사권 등이 포함된다(이광규, 1989). 물론 이러한 가부장의식은 성역할관이나 일가족갈등 등과 연결되고, 자녀양육이나 부부갈등에도 연관되므로 출산 문제와 그 관계성이 높다.

## 나. 전통적 결혼관

전통사회에서 결혼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거론될 필요가 없는 논제라 할 것이다. 다만 배우자선택이나 이혼, 재혼 의식 영역에 해당하는 몇가지 내용에 있어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sup>7)</sup>, 배우자 선택 조건의 연령에 있어 남자는 13-20세 정도로 그 폭이 넓고 여자는 대부분 13세~16세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남편 연상형의 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시대

7) 三國遺事 赫居世王, 駕洛國記, 金現感虎, 溫達, 強首 條 참조

의 수명이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세대계승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결혼연령이 이른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서동에 관한 이야기(三國遺事 武王 條), 환웅 이야기(古朝鮮檀君王 儉 條), 가락국기 등에서 보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출신지역, 신분, 가문 등의 이질적인 요인을 극복한 경우가 등장하고 있어, 이는 신분제의 정착과정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결혼에 있어서의 자유스러움과 융통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결혼형태에 있어서도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의 양식을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에 있어서도 자유스러운 사회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자의 재혼이 큰 흉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남편의 친구와 재혼하는 것도 부도덕하게 여기는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부가 된 공주의 재혼에도 아무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다시 재혼을 해서 왕비가 되는 등 이 시대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의 재혼문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여자가 재가를 하였을 때 남의 지탄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남편의 상기(喪期)를 마치기 이전에 재가한 경우이다<sup>10)</sup>.

이처럼 배우자 선택의 조건과 결혼형태에 나타난 결혼의 실상을 통해 삼국시대의 결혼관의 특성을 보면 획일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의 조건에서 신분과 가문을 중시하는 결혼, 또는 신분, 가문, 지역 등의 모든 이질적 요인을 극복한 결혼, 결혼으로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결혼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결혼 형태에서도 자유연애를 통한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재혼에 있어서도 신분과 상황의 다양함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시대의 결혼관의 특성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족, 귀족과 평민의 경우에도 그 신분에 따라 규범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중규범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의 재혼이라는

8) 三國遺事 金現感虎 武王 強首 金庾信 條

9) 三國遺事 元曉不羈 廣德嚴藏 條 高麗史 文德王后劉氏 順政許氏 條

10) 高麗史 권 제114 列傳 제 27 黃裳 條

문제에 대해 이를 정절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다스리지 않은 것은 이 시대의 가족윤리가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덕 등, 1999).

이러한 융통적인 결혼관은 조선조에 들어서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조선조 개국부터 일본문화가 수입되기 이전까지 보면, 유교윤리가 적용되면서 결혼관의 경직성과 위계적인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17, 8세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대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내적으로 봉건질서의 혼란을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였다. 이에 여성에 대한 지배, 억압, 불평등, 즉 가부장제의 확고한 질서 위에 기존의 신분체제와 정치·경제의 지배구조를 유지 내지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율곡전서에서 보면, 율곡은 광형(匡衡)의 말을 인용하여 “배필은 사람을 낳는 시초가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되어야만 만물이 이루어져 천명을 다하게 된다”(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正家편, 形內장, 1985: 213)고 하여,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배우자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배우자관은 부부관계 그 자체로서 보다는 출산을 하여 가계를 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조의 부부관계는 개인적인 정서관계로서 보다는 가(家)를 이끌어가는 구조적인 관계와 제도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부관계를 예경(禮敬)과 화순(和順)으로 표현한 바, 부부사이의 친화는 감정의 단계를 넘어 예법에 따라 공경하는 윤리적 단계라고 하였다. 이퇴계는 손자에게 부부관계가 얼마나 기초적이고 소중한 지를 지적하며 부부라는 것은 인륜의 처음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하고 가까워도 역시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삼가는 자리라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예를 중시하여 모름지기 지어비는 따뜻하면서도 의로써 규제하고, 아내는 유순히 올바르게 받들어 부부간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아야만 가정의 일이 다스려 질수 있으니, 아내가 만일 남편의 몸가짐과 말이 한결같이 바른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차츰 미더워하면서 순종할 것이다(국역 율곡전서 VI, 격몽요경, 1988: 16)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결혼하여 시가살이하는 여자는 부권에 종속되고 이혼 등 사회적 권리에 있어 부권보다 열등한 것은 물론이며 가내노동에 헌신적으로 종사하여야 했다. 극심한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가 아니라 노예이며 일하는 도구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 존엄과 도덕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물체로 보았다. 비로소 이들을 출산함으로써 며느리의 지위, 여자의 지위는 크게 달라진다. 부계직계가족의 구조적 조건은 부인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처음으로 자기의 혈연자를 부계가족에 소유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부인이 부계가족의 혈연관계를 갖고 혈연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껏 남의 집에서 온 사람으로 여기던 것이 이제 한 식구가 된 것이다. 이들을 하나 낳은 부인보다 여럿 낳은 부인은 더욱 확고한 지위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가사에 대한 발언권도 강해진다(이광규, 1989).

율곡은 부인의 자질을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집안사람의 도로서는 여자가 발라야 이로운 것이 있다. 여자가 올바르게 되면 곧 가도(家道)가 바로 된다. 다만 여자의 정절만을 말한 것은 여자가 올바르게 되면 남자도 바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국역 율곡전서Ⅴ 성학집요, 정가편, 刑內장, 1985:212), 이덕무도 “옛날의 부인들은 남편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올바른 도리를 권하고 혹은 바르게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이 없는 데로 이끌어 들였으며 부녀자가 남몰래 덕행을 쌓으면 그 아들딸들이 번성하고 잘 자란다”(이덕무, 1993: 200)고 하였다. 이는 부부 중 부인의 도리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으나, 부인에 의해 남편과 자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시사도 엿볼 수 있다.

개화기에 접어들어 부부윤리에 대한 담론은 1900년을 전후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시대 지식인들은 부부평등을, 전통적 보수계층은 유교적 부부유별(夫婦有別)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을 살펴보면 부부평등을 주장한 지식인들은 그 논거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일월(日月)을 만드사 태양은 낮이 되게 하시고 태음은 밤이 되게 하셨으니 음양의 권리가 일반이 되어 독양(獨陽, 양 홀로)이 능히 만물을

내지 못하고 독음(獨陰, 음 홀로)이 능히 만물을 기르지 못하며, 사람이 그 가운데 생하니 또한 음양의 권리를 나누어 갖은지라. 처음에 여자가 남자를 좇아 났으니 여자에게 산육(產育)하는 이치를 마련하신 고로 남자가 여자 아니면 자손을 전할 수 없는지라. 그런즉 음양의 권리가 같을 뿐 아니라 남녀의 권리 또한 동등하다」(독립신문, 1898. 5. 26. 「논설」)는 우주생성론적 음양이론의 평등적 신 해석과, 남편과 아내는 가정 내에서 구조·기능상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에, 부부유별(夫婦有別)을 고수하는 보수계층은 그 논거로 「음양 중 선후(先後)를 가린다면 양이 선(先)이기 때문에, 가정도 부부로 이루어지나 부부 중 선후를 가린다면 양(陽)에 해당하는 남편이 선이다」는 음양의 차등론을 들고 있고, 「공자나 맹자가 학문으로 인민을 가르쳤는데, 이때 인민은 여성을 포함한 인민이 아니라 여성을 제외한 남자만을 의미한 것이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남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지 여자가 아니었고, 서양 각국에서 남자가 여자를 경대(敬待)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원래 강하고 여자는 원래 약하기 때문에 남자의 강함으로써 여자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들었다(독립신문, 1987.12.31).

이와 같이 초기 부부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가족윤리의 기초적 구조를 구성한다 할 수 있는 남녀평등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차별적 지위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남녀 동등권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논란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0년 이전에는 부부평등을 인격적 평등에만 국한한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보다 실천적 측면에서 부부관계의 역학을 다루어가서, 특히 부부평등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였고 이를 인격평등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이러한 담론은 여성 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 최근의 여성문제, 성역할문제, 나아가 출산문제 등의 실천적 원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또한 1920년 이전에는 주로 부부윤리가 왜 평등해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 또는 실용적 문제에 한하여 담론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남편십계」(동아일보,1926.12.3)라든지 「충명한 아내의 9가지 비결」(동아일보,1927.11.11) 또는 「부부불화 16개조」(동아일보,1926.1.2)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해야 할 보다 구체적 윤리를 중심으로 담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구의 자유결혼풍조가 도입되어 확산됨에 따라 부부윤리의 핵심을 당사자간 사랑으로 규정하는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부간의 갈등이 잠재형에서 표출형으로 바뀌어 며느리에 의한 방화·가출·이혼 등이 사회문제화 할 정도로 폭증되었고, 가족형태의 담론이 대가족 형태에서 부부중심의 단순가족 형태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초부터 1950년 6·25 이전까지의 부부윤리는 남편중심의 위계적인 전통적 부부윤리와 평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부부중심 윤리가 서로 충돌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충돌은 잠재된 그리고 본능적인 개인의 행복추구 욕망을 자극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작용했던 서구적 가족윤리의 확산은 보수적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윤리 또는 전통적 가족윤리의 붕괴로, 신세대 또는 개화지식인과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습을 타파하고 신문명 사회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실제적인 사회현상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는 교육의 보급과 서구의 평등 사상 및 문물이 확대됨에 따라 가부장적 가족윤리의 부산물인 남자들의 축첩·외도·엄격한 남성중심의 가족제도·부모의 강요된 사랑 없는 일방적 결혼 등에 대해 여성들이 최후 수단인 이혼이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게 되었다. 이혼사유 역시 전통적 남성중심적인 제han적 사유로부터 양방적인 책임과 의무로, 그리고 애정을 중심으로 한 광의적 사유로 확대됨으로써 여성의 이혼 제기가 급증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한 주역은 남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들의 자각에 의한 것이었으며 교육에 의한 자아의식의 제고, 식민지 조건

이 형성한 개화의 필요성에 의해 가정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이 촉발됨으로서 사회에서의 남녀평등보다 가정에서의 부부평등을 여성들은 더 열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부부윤리는 법률보다 관습법을 우선시하여 이 시기의 부부윤리는 형식적 또는 외형적으로만 변모되기 시작했을 뿐 그 본질은 전통적인 부부윤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시기 부부윤리의 일반 민중적 실상은 서구적 외형 또는 형식과 전통적 내면 또는 본질간의 갈등 속에 있었으므로 전통적 윤리에 매인 부부는 신가족 개념의 부부윤리를 동경했고, 신가족 개념의 부부는 부모와 형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는 등 당시 모든 부부들은 성격은 다르나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되었다(이정덕 외, 1999).

이러한 모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의 모습과도 큰 차이가 없어, 1세기 이전에 시작된 부부관계나 여성에 대한 담론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연관된 최근의 저출산 문제는 오랜 논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회적, 국가적 유기(遺棄)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다. 현대적 결혼관

196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산업화와 근대화가 촉진되면서 가족가치관 역시 전통적 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발달은 가족가치관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우선적으로 결혼관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 조영숙(1980)은 여대생의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였고 전미향(1988)<sup>11)</sup>도 결혼관이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의 의의에 있어서 김순옥·류점숙(1984)은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아 근대적 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이혼의 허용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11) 전미향(1988).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는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 12. 14)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미혼여성은 결혼관에서 다른 계층그룹과 차별적인 가치관 및 태도를 보여, 전체 응답자의 74.1%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는 6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출산의 주된 이유가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기피현상과 결혼연령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므로(김세곤, 2002), 이러한 미혼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유의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조은(2006)은 매년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이 감소했지만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1.8로 지난 10년간(1995년~2005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이라고 보았다. 물론 초혼연령이 한국보다 높으면서도 출산율이 한국보다 낮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그들 나라의 경우는 출산율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혼외출산이던 점을 들어 한국사회와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이에 박숙자(2003)도 동의하면서, 실제로 결혼한 유배우 부인의 출산율 감소가 전체적인 합계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혼인연령의 상승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급격한 합계출산율의 저하현상은 결혼연령이 상승하여 가임기간이 단축된 점과 미혼율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전광희(2002) 역시 이혼율이 증가하는 반면 혼인율은 감소하고 또 만혼현상이 사회전반에 퍼진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초혼연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의 상승이 더 이상 급템포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주 대상 집단은 유배우 부인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미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조건변화나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통해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유도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관의 또 다른 영역들을 보면, 우선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함에 따라 결혼형태 또한 연애결혼을 선호하게 되었고, 배우자선택의 방법뿐만 아니라 배우자선택 조건도 변하게 되었다. 가문 등의 조건은 더 이상 배우자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혼전순결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결혼외의 성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김혜선·김영희,1983; 양명숙,1996; 이정우·오연옥,1995).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별에 따른 이중적 가치관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공미혜, 1993; 박순희·함귀옥, 1986; 이정숙, 1985).

성의식도 변화되고 있는데, 순결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남녀 미혼, 기혼 모두 과반수 이상이 절대 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결혼전보다는 결혼 후의 순결을 강조하였다(박인덕, 1973). 유영주(1976)의 연구에서는 혼전 성관계는 남성에게 어느 정도 허용되나 여성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들어 고정자(1983)는 미혼남성의 과반수 이상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박진숙(1984)도 남녀 모두 꼭 지켜야 한다고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공미혜(1993), 박순희와 함귀옥(1986), 이정숙(1985)의 연구들에서는 혼전 순결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이중적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혼관에 있어서 성차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홍준숙(1987)<sup>12)</sup>은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생각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찬성한다고 하여 성차를 언급하였고,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강호철(1984)<sup>13)</sup>, 장휘숙(1995)도 성 허용성에 있어 성차가 나타남을 지적하였으나, 조양지(1984)<sup>14)</sup>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혼관에 있어서의 성차는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조건의 평

12)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13)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경상대 교육석사논문.

14) 조양지(1984). 보건전문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 교육석사논문.

등성이 전제되어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성차는 흔히 간과되기 쉬운데,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가치관의 성차에 대한 인식이 각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자녀관

### 가. 개념과 특성

성인에게 있어 자녀를 낳는 일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존재감이나 영속성을 확인시키거나 애정과 같은 정서적 만족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관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녀관은 다른 가치관에 비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녀의 필요성은 얼마나 자녀가 개인의 요구나 만족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김의철 등(2005)은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를 갖는 이유로 가문을 이어가기위한 사회적 가치,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의 위치가 분명해지고 대우를 받는다는 관계적 가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나이 든 어머니일수록 사회적 가치나 관계적 가치 인식이 더 높고 젊은 어머니들은 심리적 가치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비슷한 결과로 Arnold 등(1975)은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자녀가치 연구에서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가 가사를 돕거나 노후 부양을 하는 등의 경제적/도구적 가치, 가문의 영속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 부모로서의 애정과 기쁨, 자부심 등과 관련되는 심리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한국에서는 심리적 요인이나 관계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가치가 더 중

요하느냐 보다는, 이러한 가치들이 총체적으로 출산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이며, 가치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그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녀의 필요성 이외에 자녀관의 내용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자녀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 역시 이러한 자녀양육방식과 관련될 것이며, 또한 이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 부담 등과도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나 혈연중심주의가 있는데, Kagitcibasi(1996)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가치가 점차 더 중요해지므로 많은 자녀를 가질 필요나 아들 선호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자녀가치관에는 이러한 남아선호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적 성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거나 가문영속을 위한 여성의 전통적 의무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이것이 아들을 낳기 위한 다자녀 출산과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으로 자녀관과 가족주의에 관련하여 ‘집’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집’은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미래의 후손에 까지 연결되는 영속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가족의 최대의 관심은 조상의 유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자손에게 물려주는가에 있다. 이것은 제사에 의한 조상숭배 관념의 계승과 가산(家産)의 유지와 확대 그리고 이를 계승할 아들의 출산이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집의 존속은 조상에서 후손에 이르는 무한한 친자관계의 연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곧 집의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더욱 발전시켜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통솔자인 가장이 필요하게 된다. 가장은 가족의 대표자인 동시에 역대 조상의 대리자이다. 가족원은 이 가장을 중심으로 남녀, 장유(長幼)의 서열에 따라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결정된다(유영주 등, 2010). 집은 장남에 의해 계승되고 차남 이하는 결혼을 하면 별개의 집을 마련하여 분가하지만 이들 집단은 동족으로써 지속적인

로 가문을 이루어 나가며 협조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문의 영속성 개념이 사라지면서 다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핵가족화하면서 정신적 의미로서의 ‘집’의 개념이 상실되고, 경제적 재산 가치로서의 ‘집’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간의 응집과 이를 토대로 한 집안의 번성에 대한 지향성과 가치는 사라지게 되었다.

## 나. 전통적 자녀관

高麗史 列傳 제3 大覺國師條에서는 왕자가 출가하기를 원하자 부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식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자식을 떠나보내 줄 이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다. 즉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부모-자녀간 윤리는 건강한 개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각자의 선을 넘지 않는 역할을 충실히 시도하는 쌍무적 윤리임을 나타내 준다. 이처럼 쌍무 호혜성은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으며, 오히려 부모 부양에서 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대의 서류부가혼(媿留婦家婚)<sup>15)</sup>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조선시대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는 자녀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를 생명을 부여해 준 은인으로 여겨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중하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덕무는 “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망치고, 딸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다. 교식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버려두는 것은 한없는 근심과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니, 나의 아들 딸 된 사람으로서 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금

15) 사위가 혼인 후 처가에서 자녀가 출생하거나 성장할 때까지 장기간 거주하는 혼인거주규칙

수와 다름없이 될 것이니 어찌 두려운 생각을 아니 하겠는가”(이덕무, 1993: 237)라고 하였다. 또한 이덕무는 사소절의 童規편에서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조금이라도 간악함이 없고, 아버지가 주신 몸은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한번 생각을 하는데도 다 법칙이 있어야 하고, 한번 행동을 하는데도 다 격식이 있어야 한다. 그 의복을 정제하고 그 음식을 절제하는 등 어려서 표준이 없으면 자라서 더욱 잘못되는 법이다”(이덕무, 1993:273)고 하여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이 성장 후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시열(1986)은 戒女書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녀교육 내용으로 “어렸을 때부터 속이지 말고, 너무 때리지 말며, 글을 배울 때도 순서 없이 권하지 말고, 하루 세 번씩 권하여 익히고, 잡된 장난은 못하게 하고, 보는데서 드러눕지 말게 하고, 세수를 일찍하게 하고 친구와 약속을 했거든 지키게 하여 남과 실언치 말게 하고, 잡된 사람과 시귀지 못하게 하고, 일가 제사에 참례케 하고, 온갖 행실은 옛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관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자애(慈愛)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부모자녀간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해 개화세력이 담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애와 공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이시기 초기에 있어 자녀관, 전통적 가족윤리의 기축인 효를 불변의 구조로 보아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단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아동이 사회발전론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미를 자녀교육문제와 아들, 딸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까지 불변적 기축으로 간주해 왔던 효문제를 시대적 조건과 결부시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의 인격문제가 부모자녀간 윤리담론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1920년 이후 전개되었던 자녀관은 「자녀는 가정에서 무엇인가」라는 초기의 철학적 담론과는 달리 「부모와 자녀간 관계의 윤리 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부모중심의 효가 중심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

녀중심의 사랑이 중심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으로 바뀌고 있으며, 근대화의 관점에서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와 달리 어린이를 새 가정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자녀중심으로 부모자녀간 윤리를 담론하고 있고, 그 결과 「부모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라는 권리 중심적 부모자녀간 윤리담론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의무 중심적 담론으로 바뀌고 있다(이정덕 등, 1999). 이러한 자녀관의 변화는 쌍무적인 전통적 부모자녀관계에서 좀 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효보다 아동의 인권을 지향해간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었으나 이러한 경향이 현대에 들어서서 소수자녀화와 맞물리면서 일반적인 부모의 희생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투자, 교육열 등과 연결되면서 오늘날의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된 것은 안타까운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1920년 이후 자녀관은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가문의 자식이라는 유교윤리적 관점과는 달리 부모자녀간 관계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모의 관점에서 본 아들·딸이라는 차별적 칭호를 평등적 칭호인 어린이라는 말로 통합하여 어린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했고,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당시 논의된 자녀중심론은 실상에 있어서 평등원리 하의 서구적 윤리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사회에서 부부차별이나 아들과 딸의 차별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차별적 자녀관은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균열은 형식적이거나 여자의 상속권 인정으로 나타났고, 집을 떠나 공부하거나 취직하는 딸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집가기 전 여자아이는 가정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다는 유교전통의 인습이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이정덕 등, 1999). 따라서 부모의 딸자식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어 갔고, 아들 중심의 자녀관에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 다. 현대적 자녀관

현대에 들어서서 자녀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가 노후 부양의 당사자로 기대되는 측면의 인식 변화가 대표적이다. 노후생활의 대비로 자녀에게 의존하던 가치관이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치관이 전환하면서,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도 감소되었다(김승권, 2004). 이는 젊은 층에서 그 변화가 뚜렷하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 12. 14)를 보면 자녀의 필요성 인식에서 전체 평균이 79.3%인데 비해 미혼여성은 72.5%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젊은 층 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소자화현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여성의 취업과 가사, 양육 지원의 미흡함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투자재적인 성격(자녀가 커서 부모를 보살피줌)에서 소비재적인 성격(교육비 등의 무거운 부담)으로 변한 점을 들고 있다(社會保障審議會人口部會 編, 2002). 이처럼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적게 갖기로 결정하는 요인은 자녀를 키우는 기쁨보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부는 현재의 생활수준의 유지, 빈곤 방지를 위한 소극적 적응 형태로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다(野澤 正子, 1995). 여성부의 전국 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2003)를 살펴보면,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가운데 51%가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전통사회에서부터 견고히 유지되어 왔던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의무감은 경제적 가치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해석하거나 집단 윤리의 상실로 규정할 수도 있다. 특히 전반적인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과 급속한 상업화는 결국 자발적 공공영역의 형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나 공동체 윤리는 보이지 못한 것이다. 가족주의마저도 시민사회의 공공성과는 결합하지

못한 채 배타적, 이기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이나 자녀양육태도에 있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산아제한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까지도 몇몇 연구에서는 일부 계층에서 아직도 남아선호의식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영숙·이선자(1980)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들, 특히 장남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고, 서병숙·김윤(1983)은 대도시에서는 근대적 의식을 보이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남이를 보다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정자의 연구(1983)에서는 ‘두자녀가 딸일 경우에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에 59.5%가 찬성하여 비교적 개념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명자(1990),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아들선호의식에 있어서 비교적 근대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보처 조사(1996)에서는 남아선호의식에 있어서는 ‘상관없다’가 49.2%이지만 ‘남아가 더 좋다’도 40.4%로 나타나 여전히 남아선호의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부모의 유형도 ‘자식과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부모’(76.2%), ‘자녀의 의사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67.4%)가 높게 나타나 자유주의적 자녀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적 자녀관은 과거처럼 단순하거나 명료하지 않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도 부모 개인의 목적과 의식, 또는 주변 상황 등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기대나 의무 등으로 자녀 출산의 역할을 일괄적으로 강조할 수 없으며, 다만 사회는 이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이라는 심리적 가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직 관계지향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행위로 인식되도록 하는 가치관 확산이 필요하리라 본다.

### 3. 성역할관

#### 가. 개념과 특성

성역할관은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을 일컫는 것으로, 남녀의 성에 대응하여 분화된 사회적 역할행동의 형태 또는 특성을 말한다. 사회는 사회의 성원인 남녀가 성별에 따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성역할 기대가 있다. 성차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성역할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며 성장과 학습의 과정에서 이러한 성역할관이 생성되고 굳어지게 된다.

사실 성역할관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수정되어져 왔다. 인간 생활의 초기 단계는 수렵과 채집 시대로서 이 단계에서는 가족 단위가 모여 수십명의 생활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 이 공동체는 함께 이동하며 생사를 함께 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평등과 분업을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성차보다는 능력차에 따라 노동하고 대우 받았으며 자유스런 가족관계를 가졌다. 노동을 위한 분업은 연령별, 남녀별로만 단순하게 구분되어지고 자원은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생활도구나 사유물은 자유스럽게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지도자는 남녀간에 차별 없이 판단력이나 용기와 지혜를 소유한 개인적 능력에 따라 추대 되어졌다. 사회구조가 이렇게 단순한 상태에서는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도 권위와 복종보다는 온정적이며 자유스러운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농업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농경 사회로 진행하면서 재산 소유권이 등장하였다. 또 인구와 경제규모 증대의 결과 그 통제 수단으로서 국가가 발생하고 계급과 가부장제가 등장하였다. 이로써 가족 내에서도 부부, 부모자녀간 권위적 관계가 시작되고 남녀간 역할 분화, 가부장제에 의한 가족 지배가 이루어졌다. 출산과 양육에 오랫동안 전념해야 했던 여성은 지위나 이동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있어 남성에 종속

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들은 사유재산제와 부권제에 입각한 사회제도와 가족제도를 만들어 여성을 생산 기능의 예속자로 만들었다. 여성은 생산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치 부여가 거부되고 소외자로서 전락하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처럼 기질이나 역할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남자는 능동적, 적극적, 논리적이고 여자는 수동적, 소극적, 감정적이다 등의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의 기질적 차이의 개념을 갖게 되고 남자는 바깥 일에 능하고 여자는 집안 일에 적합하다는 역할 구분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역할이란 생득적으로 정해진 것,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서 여성 혹은 남성의 성격이나 역할에 필연적인 것이란 없다. 주어진 사회 유형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역할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남성·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역할관도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성역할관은 여성의 이중노동이나 부담을 강조하고 있어 출산의 주체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이 요구하는 과도한 역할에 대해 저항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관은 내용적으로 주로 남녀평등의식, 성고정관념, 여성취업의식 등을 다루고 있다. 남녀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지하는지, 성고정관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떠한지,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지 또는 맞벌이나 이중노동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등이 포함되어 분석되어진다.

#### 나. 전통적 성역할관

고려시대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관에 있어서 남편에게는 ‘다스리고 거느리는 것’을, 아내를 ‘유순하게 받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高麗史 恭讓王 條), 국정에 적극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高麗史 成平王后任氏 條, 三國遺事 駕洛國記 條)<sup>16)</sup>. 더 나아

가 신라시대 여왕이 세명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여성이 단순히 유순하게 받드는 역할만 수행했다기 보다는 여성의 능력이 인정받고 기대되었다는 것도 나타내주는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왕족에서부터 평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쓸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sup>17)</sup>, 이 시대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평등관계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는 달리 조선조에서는 남녀간에 엄격한 차별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율곡의 성학집요 근엄장에서는 “남자는 안일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깥일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한다. 제사지낼 경우와 상을 당하였을 때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부부 유별 및 남녀유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남자를 가르치지 아니함은 내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여자를 가르치지 아니함은 남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규중요람』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조선조 유학에서도 이념적으로는 남녀평등 교육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 민중의 역사현실에서는 여자를 몰적(독립신문, 1899. 5.26)으로 간주하여 교육을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고 사회가 불안했던 조선조 말에 이르러는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다만 민중의 경제기반에 대한 파탄 및 서구열강의 침략 속에서 아녀자와 하층 민중들을 교육시켜 개화시키고자,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한 한글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제국신문, 1903. 6. 19).

여성지위나 역할과 관련하여 1920년 이후에 나타난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성의 이혼청구 증가를 통해 하층 계급을 중심으로 가장권이 동요되기 시작했고 과도한 예물과 매매혼적 성격의 풍습으로 인하여 빈곤계층에서 가장권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이정덕 등, 1999).

16)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政事를 함에 있어 신하들의 보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참조할 수 있음(『高麗史』 권 제88 列傳제1宣靖太后金氏 條).

17) 三國遺事 塔像4나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條

#### 다. 현대적 성역할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성역할 개념에 근거한 가치관에도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대는 특히 대중문화의 시대로서, 1971년에 겨우 62만대에 불과하던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대수는 1980년에는 10배 이상인 660만대에 이르게 되었고, 칼라TV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중문화는 더욱 자극적이 되었다. 또한 경제수준의 향상은 집단나들이나 향락문화를 부추기게 되었다. 특히 연애관, 성역할관 등의 변화는 이러한 주변 환경과 정보매체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시기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개선 노력이 여성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지 시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여성의 물화를 부추기는 상업주의적 공격에 의해 여성의 의식과 행동은 충돌하게 된다.

1980년대 가족내 성역할관의 변화를 다른 연구들로서, 김정옥(1980)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내 부부의 역할분화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옥선화(1980)는 역할 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역할구분이 지켜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병숙·김윤(1983)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근대적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는 완전히 평등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명자(1990)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보처 조사(1996)에서는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가 6.6%에 불과한 반면 ‘결혼, 육아에 상관 없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가 40.9%에 달하여 여성직업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가정내 의사결정권도 항목별 구분이 지어지나 비교적 아내의 역할을 더 뚜렷히 규정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직업관에서의 변화는 90년대 들어 비교적 뚜렷해지면서(공보처, 1996), 특히 미혼남녀 등 젊은 층에서의 근대적 성역할관이 두드러진다(양명숙, 1996; 조미숙·오선주, 1999).

Chesnais(1996)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성평등의 수준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지만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칭하였다. Chesnais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대응시켜 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성평등 수준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cDonald(2001)도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한 것은 경제적 요인과 성평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어났다고 진단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원인으로 성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 4. 일가족관

##### 가. 개념과 특성

일가족관은 일과 가족의 양립 상태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받아들이느냐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일과 가족에 공평하고 적절한 가치를 두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적으로 이들의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가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위주의 가치관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의 구성체로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가족 단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가족과 일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의 노력은 불가피한 변화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적응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것이 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가족관에서 파생되는 일-가족 갈등(WFC: Work-Family Conflict)은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할압력이 몇 가지 측면에서 상호양립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직장역할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역할수행이 어려운 경우와 반대로 가정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직장역할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역할갈등은 크게 역할내 갈등(intrarole conflict)과 역할간 갈등(interrole conflict)으로 분류 된다. 역할내 갈등이란 하나의 역할 내에서 생겨나는 상호양립 불가능한 역할 압력을 의미하며, 역할간 갈등은 서로 이질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특성을 요구하는 다중역할을 가질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또한 일-가족 갈등은 직장일로 인해 가족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방해되는 일-가족 갈등과 가족 일이 직장의 일을 방해하는 가족일 갈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가족관을 구성하는 내용은 일가족역할의 동시 선택에 대한 지향성, 일과 가족의 균형적 가치 인식, 가족 대비 일에 대한 가치 지향성, 일과 가족의 보상적, 혹은 전이적 입장 또는 이와 관련된 물질주의 가치의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나. 일가족관의 변화

과거에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어 직장은 남성의 일, 가정은 여성의 일로서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던 시절에는 일가족관은 동시에 논하기 어려운 주제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일가족관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가 본격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일가족관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에는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양존하는 가치개념이 되어 오고 있다. 사실 이 두 가

지는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은 가족에게 가족은 다시 일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순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영역 모두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둘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무엇을 선호할 것인지의 가치 선택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6. 11. 22)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혼과 일의 우선순위에서 전체 평균의 54.2%가 ‘일 우선’을 선택하였지만 미혼여성은 69.9%가 ‘일 우선’을 선택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일가족갈등에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가족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문제 발생 가능성도 집작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가족관은 출산행위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결되어 있으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출산을 기피하게 되기 때문이다(서문희, 2004).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출산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데,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 여성 스스로는 일가족관의 정립, 사회적으로는 일가족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성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사실 여성의 이중노동과 이에 대한 논란은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가족갈등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의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의 성과와 관련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즉 일-가족갈등이 개인의 만족도나 우울 등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조직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가족관의 명확한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일가족관은 여성에게만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성역할관이 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남성에게도 정립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숙현(1995)의 연구에서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상당부분을 희생시키고 있는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

분에 대해 상당 부분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일-가족 갈등에 관해서는 갈등 유발 및 갈등 완화 기제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갈등 완화 기제로서 다양한 개인 변인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등이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가족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출산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석되고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점차 근로자들의 가족 지향적 가치관이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 일-가족 갈등을 해결하려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성의 조사결과(1993)에서 보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욕을 보이는 것은 31.2%를 차지한 가정생활이었고, 직장 영역은 그 다음으로 22.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의 한지숙·유계숙(2007)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

또한 일가족갈등은 일, 가족 어느 쪽이나 상호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김인선·이동명(2009)은 일-가족갈등이 일과 가족영역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정서의 전이효과를 일부 제시하였다. 일-가족갈등 개념이 ‘직장의 가정역할 방해(WIF: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와 ‘가정의 직장역할 방해(FIW: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의 양방향성을 가지고 갈등의 원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호 전이적인 것이다. 즉, 직장-가정 갈등 개념을 방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장과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태도가 각기 다른 영역에도 동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전지현, 2004).

일가족갈등의 한가운데 아직도 여성이 위치해 있게 되면서,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 모두가 여성의 부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혹한 물질만능주의적 경쟁 사회로 내몰리면서 동시에 사회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일가족관의 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가족에 관련된 부담들이 가변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일가족관의 균형은 이상적 기준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일가족관의

현실 적용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 5. 부모관/효도관

### 가. 개념과 특성

앞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는데, 반대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치관, 즉 부모관은 주로 효라는 이데올로기로 표현되어 왔다. 전통사회에서 규정한 효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를 지칭한다. 부자 상호간의 쌍무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자식의 일방적인 편무관계이다. 이 효는 덕의 근원이며, 인의 근원이기도 한 중대한 인간윤리행위로 보았다. 반대로 말하면 인, 덕의 구체적인 표현이 효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효도는 백행의 근원이며 인간생활의 지도원리로 보았다(최재석, 1990).

전통사회에서 효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것, 집에 대한 것, 타인에 대한 것, 또는 주로 자식의 일체의 행동에 관한 것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부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외에도 부모의 심기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식의 행위는 모두 효도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부모에 대한 것은 부모를 부양하고 시중들고 섬기는 일이며, 집에 대한 것은 집을 계승할 남자를 생산하는 일, 타인에 대한 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를 신임하며 직업에 충실한 것, 기타 자식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부모에게 반항 되기 때문에 효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동거생활을 영위하면 가족은 반드시 자녀를 가진다. 심지어 전통사회에서는 자녀 없이 부부만이 이룩한 집단은 완전한 가족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여 왔다. 특히 한국의 전통가족은 부자관계가 모든 대인관계의 중심이 되어 왔다. 형제관계는 물론 부부관계도 부자관계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관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관계선이라 하겠다. 이러한 부자관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이른바 효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다(이광규, 1989).

이처럼 부모관/효도관의 내용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식, 부양 시의 동거나 아니나 등의 부양형식, 부모자녀관계의 절대성이나 친밀성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효의식, 의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나. 한국의 전통적 효도관

삼국시대의 효는 유교의 윤리와 달리,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융통적인 효의 개념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 孝善 제9 眞定師 孝善雙美에서는 부모 봉양이라는 현세적인 효와 출가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효도가 출가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음을 거듭 일깨우고 있다. 여기서 어머니는 물질적 효만이 아니라 정신적 효의 측면과 함께 자식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高麗史 列傳 제22 李穀 條에서 보면 “딸을 낳으면 애지중지하게 키워 장성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딸이 부양해 주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딸, 아들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부양자인 딸에 대한 기대가 더 큼을 알 수 있고, 高麗史 世家3 成宗9년 條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 모두 잘 모신다는 내용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딸의 역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三國遺事 紀異 塔像 列傳, 孝善 등을 보면 자식은 불사(佛事)라는 방식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있고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해 불사를 통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 있어 일방적 관계를 띠는 것이 아니고 쌍방적 윤리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희생에 의한 효행의 기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sup>18)</sup>, 이러한 효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8) 三國遺事 塔像4, 孝善 제9條, 三國史記 列傳 제8, 景德王 14년 條, 高麗史 列傳 제34 條

이 국가로부터의 보상이 상당히 크다고 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효행이 지극한 덕행으로 평가되고 칭송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면 서까지 효행을 하는 효자·효녀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에는 효에 대한 제도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퇴계는 부자관계의 친화를 모든 인간관계에 앞서서 확보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인륜으로 친애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의 소유에서나 거처의 분리로 친화가 감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를 섬기는 일중에 중요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인데, 율곡은 사랑과 공경이 함께 지극하면 그것이 바로 효자의 도(국역 율곡전서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 190)라고 하였다. 이처럼 율곡은 인간형성에 있어서 부자의 윤리 즉 효를 첫째로 강조하고 있는데, 효도는 모든 행동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는 효도와 공경하는 일을 그 첫째로 삼는다(국역 율곡전서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 189)고 하였다. 부모를 섬기는 효도를 옮겨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성이 되며, 부모를 섬기는 공경을 옮겨서 웃어른을 섬기면 곧 순함(國역 율곡전서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고 하여 효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효는 부모 생전의 도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후에까지 행해야 할 도리가 있어 자식이 나서 삼년이 되어야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삼년상을 지내는 것은 천하에 공통되는 상례라 하였다. 따라서 율곡은 제사에 있어서 공경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난하면 집의 형편에 어울리게 하고, 병이 있으면 자신의 기운을 헤아려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재물과 자신의 기운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의당 의식대로 행해야 한다(국역 율곡전서V, 격몽요결, 제례장, 1988: 15)고 하였다.

개화기가 되면서 효라는 말로 집약된 부모-자녀간 윤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란 이제까지 천륜으로 규정했던 효 문제를 다른 사회적 윤리와 마찬가지로 인륜의 한 범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만년동안 우리 가족 윤리사에서 천륜으로 생각해 왔던 부모자녀관계마저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인 인류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천륜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천륜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 특히 수직적 질서를 근간으로 한 부모자녀간 윤리는 결혼 결정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평적 질서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객관화된 부모와 자녀간의 실천적 담론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이정덕 등, 1999).

#### 다. 현대적 부모관/효도관

가족가치관 중에서 최근 들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가 효 및 부양의식에 관한 것인데,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노인부양 형태가 변화하고 효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어, 장남 이외 차남이나 딸과의 동거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양을 절대 의무시하고 있으나(이천세, 1973)<sup>19)</sup> 국가나 사회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어 부모부양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1980년대 들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병숙·김윤의 연구에서도 농촌, 도시 모두 노후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근대적 가치의식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한국인구보건원(1985)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장남부부와의 동거가 38.4%, 장남이외 아들과의 동거가 12.4%, 딸부부와의 동거가 2.4%로 나타나 점차 장남과의 동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병숙(1988)의 연구에서도 딸 부부와의 동거율이 11.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춘희(1987)<sup>20)</sup>의 연구에서 보면 장남의 경우에는 동거보조형을 선호하나 만며느리의 경우에는 별거보조형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보처 조사(1996)에서는 부양자로 이들 딸 관계 없이 자식이 모시면 된다는 응답에 62.4%가 찬성하고 있어 장남이 모셔야 된다는 14.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부모부양 의식은 전통적인 부

19) 이천세(1973). 농촌지역주민의 가치관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 임춘희(1987).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부의식 유형.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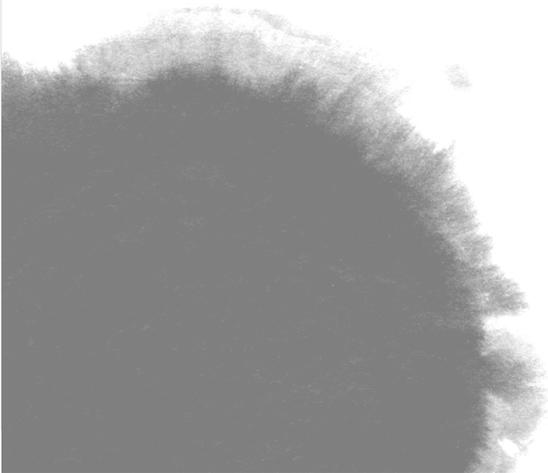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양의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부양자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규탁(1995)은 세대집단별로 효행의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효행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좌우하는 변인임을 밝혔으며 가장 현저한 차이는 소년층과 장년층간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연주(1984) 역시 효에 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재간·임춘식(198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경신(1998b; 2010)의 연구에서 보면 효도관은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최근까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가치관인데, 다만 효도에 대한 당위성 이외에 실제로 실천적 행위로서 이러한 의식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의문시되는 바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효에 대한 당위적 인식은 하나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식과 행동의 괴리는 부양의 불안정을 유발하여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출산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부양의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오히려 효의식의 승화와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 03

## 산행연구 고찰





## 제3장 선행연구 고찰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관이 미혼 남녀의 결혼 행태 및 기혼 여성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삼식(2006)의 연구나 성역할관 혹은 성평등과 저출산에 관한 박수미(2005)와 은기수(2005)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실증적 분석 보다는 가설적 논의 혹은 조사 결과의 흐름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성역할관 혹은 성평등 관련 가치와 저출산 관련 연구, 결혼관 및 자녀관과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역할관 혹은 성평등 관련 가치와 저출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은기수(2005)는 한국에서의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출산 양의 변화보다는 출산 시기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 시기는 만혼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및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자녀 출산 간격이 늦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 시기 변화를 이끄는 요인들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동과 한국에서의 강한 가족주의 및 가족 내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을 들고 있다. 이 중 후자인 가치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피터 맥도날드의 공적 영역에서의 성형평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형평성 사이의 불균형에 관한 논의를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들의 교육수준 상승 등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

는 가족으로 들어가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더라도 가족 내에서의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면, 자녀 출산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박수미(2005)도 결혼을 감소 및 만혼과 가족 관계 내에서의 성 불평등한 역할 분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기수(2005)와 같은 논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결혼을 감소 및 만혼과 관련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장기화된 경제 불황, 특히 청년실업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은기수(2005)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 반면 가족내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사분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기능할 수 있는 여성개발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를 다른 나라와 비교시 여성개발지수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여성권한척도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의 능력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아 한국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볼 수 있는 성별 시장 노동시간 및 비시장 노동시간 비교에서는 시장 노동시간은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호주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으나, 비시장 노동시간에서는 위 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매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나타나 특히 맞벌이 여성들이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히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출산포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자녀관과 출산 관련 연구로는 권용은·김의철(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 가치의 개념과 출산율의 관계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자녀가치의 시대적 변화와 세대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VOC(value of children)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1970년대에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연구 고찰을 통해 자녀가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인이 출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녀가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

선호가 아들 선호에서 딸이나 상관없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점차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 선호에 대한 가치가 낮을수록 출산율도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혼관과 자녀관, 성역할관이 미혼남녀의 결혼 행태 및 기혼 여성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이삼식(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관과 자녀관, 성역할관이 미혼남녀의 결혼 행태(결혼 의향과 결혼 희망 연령)에 미치는 영향과 기혼 여성의 출산 행태(현재 진행형의 출산력으로서 출생자녀수와 완결출산력으로서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가치관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치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치 변수들이 집단적으로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각각의 결혼 이행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관 중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우, 성역할관 중 남편생계모형 가치에 순응하는 경우 결혼이행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혼남녀의 결혼 계획 연령에 대해서는 가치 변수들의 집단적 영향력보다는 개별 가치 변수들의 영향력만이 나타났는데,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경우 모두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 외에도 가치 변수들 중 성분업적 역할규범 변수가 결혼 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쳐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거부하는 여성일수록 결혼 계획 연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변수들이 기혼 여성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출생 자녀수와 기대자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관 중 이혼에 대한 태도와 자녀관 중 자녀의 필요성이었다. 이혼에 찬성할수록 출생

/기대자녀수가 적었으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출생/기대자녀수가 많았다. 반면 자녀관 중 자녀 효용 가치와 성역할관 중 남성생계모형 가치는 출생자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높이 인식할수록,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더 많은 출생자녀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과 출산율에 관한 국외 연구들로는 앞서 국내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된 Van de Kaa(1987)의 “제2의 인구학적 변천” 관련 논의 및 Peter McDonald(2000)의 성 형평성 관련 논의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therford 외(1996)는 가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함께 일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73년 이후의 출산율 저하는 가치 변화 보다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출산 관련 가치 변화는 출산 행동 변화에 뒤따라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출산 관련 가치 변화가 뒤따라오면 또 그 가치가 출산력에 다시 반영되어 출산력이 더 저하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런 피드백은 측정하기 어려워 추측으로만 남겨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가치의 많은 부분들이 여성의 교육과 직업 획득에 따른 경제적 독립성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주의 및 성평등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런 발전이 이미 결혼 연령 증가나 기간 출산력 저하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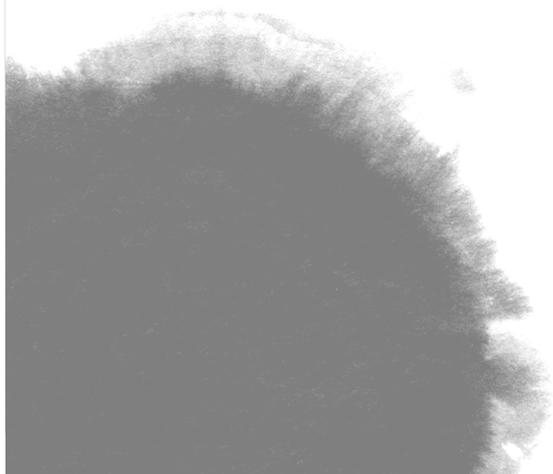
Atoh(2001)는 일본의 출산율이 1970년대 중반에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인구학적 분석이나 경제 이론을 적용한 분석에서 벗어나, 가치 변화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 변화 시기가 최근의 결혼이나 자녀 출산 관련 규범 및 행동 변화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서구의 196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을 설명하는 “제2 인구학적 변화”와 비교하여 일본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일본의 경우 개인주의나 종교 의식과 관련된 가치 변화 보다는 부모자녀 관계나 배우자 관계, 남녀 관계가 80년대에 급

격하게 변했다. 즉, 노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여성이 급격히 줄었고, 명확한 성역할 구분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줄었으며, 딸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게다가, 1980년대에 혼전 성관계나 미혼 여성, 이혼에 대한 사회의 용인이 훨씬 증가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으로 높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오고, 이것이 1980년대 엄청난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서구에서와 같이 도덕의 약화나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보다는 Davis가 말한 “성역할 혁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역할과 관련된 가치 변화와 함께 1980년대에 국제적으로,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여성의 권리 신장과 관련된 많은 정치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 04

## 저출산 현상 및 정책 현황





## 제4장 저출산 현상 및 정책 현황

###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였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과거 하락했던 출산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다시 한 번 출산율이 감소하여, 우리나라는 결국 초저출산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약 40년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급격)하락기, 유지기, 하락기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급격한 하락기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1975년 3.43명, 1980년 2.82명에 이어 1984년 2.06명으로,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매우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출산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이삼식, 2006).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국민의 욕구와 함께 가족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즉, 영아사망률 감소 및 일반사망률 저하, 남녀의 교육수준 향상, 산업 사회 및 도시사회 형성, 여성 지위의 향상,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의 제반 여건이 호전되어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국가기록원, 2006).

반면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5~1.7명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1년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초저출산시대로 진입한 이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유배우율 감소로,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는 초혼연령 상승 및 유배우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조남훈·이삼식·정경희 외, 2008). 물론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및 일·가정 양립 곤란,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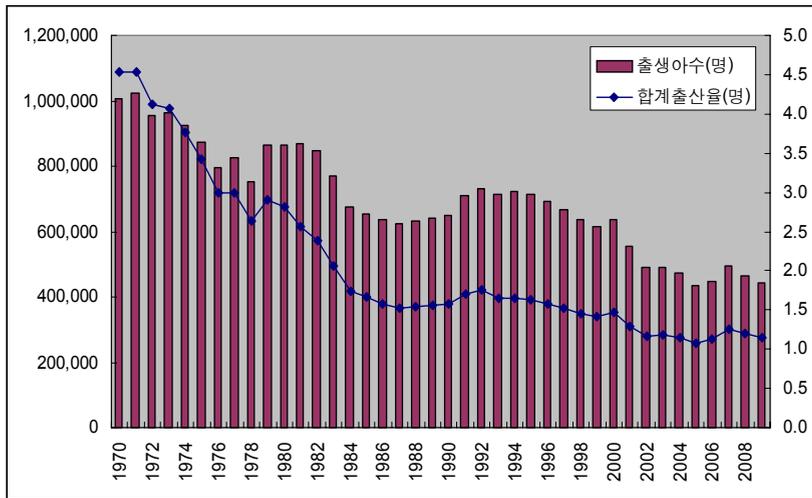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1970	4.53	1,006,645
1975	3.43	874,030
1980	2.82	862,835
1985	1.66	655,489
1990	1.57	649,738
1995	1.63	715,020
2000	1.47	634,501
2001	1.30	554,895
2002	1.17	492,111
2003	1.18	490,543
2004	1.15	472,761
2005	1.08	435,031
2006	1.12	448,153
2007	1.25	493,189
2008	1.19	465,892
2009	1.15	444,849

자료: 통계청, KOSIS

또한 합계출산율 외에 출생아 수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70년에 100만 7천명 수준, 1972년부터 1983년까지 70~9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4년 67만 4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60만 명대로 진입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6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 초반에 70만 명대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0년 중반 이후 60만 명대로 다시 감소하였고, 2002년 이후 40만 명대로 감소하여 2009년 44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 즉, 2009년 출생아수는 1970년 수준의 44% 정도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3.23명에서 1970년 2.71명, 1980년 2.14명, 1990년 1.86명, 1995년 1.69명, 2000년 1.65명, 2002년 1.60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증가 추세로, 2007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까지 상승하였고 2008년 추정치가 1.71명에 이르러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60	'70	'80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호주	3.45	2.86	1.89	1.90	1.82	1.76	1.73	1.76	1.75	1.76	1.79	1.82	1.92	1.97
오스트리아	2.69	2.29	1.65	1.46	1.42	1.36	1.33	1.39	1.38	1.42	1.41	1.41	1.38	1.41
벨기에	2.54	2.25	1.68	1.62	1.55	1.72	1.76	1.65	1.72	1.76	1.77	1.80	1.81*	1.82*
캐나다	3.90	2.33	1.68	1.71	1.62	1.49	1.51	1.50	1.53	1.53	1.54	1.59	1.66	
체코	2.11	1.91	2.10	1.89	1.28	1.14	1.15	1.17	1.18	1.23	1.28	1.33	1.44	1.50
덴마크	2.54	1.95	1.55	1.67	1.81	1.77	1.75	1.72	1.76	1.78	1.80	1.85	1.85	1.89
핀란드	2.71	1.83	1.63	1.79	1.81	1.73	1.73	1.72	1.76	1.80	1.80	1.84	1.83	1.85
프랑스	2.74	2.48	1.95	1.78	1.71	1.87	1.88	1.86	1.87	1.90	1.92	1.98*	1.96*	2.00*
독일	2.37	2.03	1.56	1.45	1.25	1.38	1.35	1.34	1.34	1.36	1.34	1.33	1.37	1.38
그리스	2.28	2.39	2.21	1.39	1.32	1.27	1.26	1.27	1.29	1.31	1.34	1.41	1.42	1.51
헝가리	2.02	1.97	1.92	1.84	1.57	1.33	1.31	1.31	1.28	1.28	1.32	1.35	1.32	1.35
아이슬란드	4.27	2.81	2.48	2.31	2.08	2.08	1.95	1.93	1.99	2.03	2.05	2.07	2.09	2.14
아일랜드	3.76	3.87	3.23	2.12	1.85	1.90	1.96	1.98	1.98	1.95	1.88	1.90	2.03	2.10
이탈리아	2.41	2.43	1.68	1.36	1.19	1.26	1.25	1.27	1.29	1.33	1.32	1.35	1.38	1.41
일본	2.00	2.13	1.75	1.54	1.42	1.36	1.33	1.32	1.29	1.29	1.26	1.32	1.34	1.37*
한국	<b>6.00</b>	<b>4.53</b>	<b>2.82</b>	<b>1.57</b>	<b>1.63</b>	<b>1.47</b>	<b>1.30</b>	<b>1.17</b>	<b>1.18</b>	<b>1.15</b>	<b>1.08</b>	<b>1.12</b>	<b>1.25</b>	<b>1.19</b>
룩셈부르크	2.28	1.98	1.50	1.62	1.67	1.78	1.66	1.63	1.62	1.66	1.62	1.64	1.61	1.60
멕시코	7.25	6.77	4.97	3.43	2.94	2.77	2.60	2.46	2.34	2.25	2.20	2.17	2.13	2.10
네덜란드	3.12	2.57	1.60	1.62	1.53	1.72	1.71	1.73	1.75	1.73	1.71	1.72	1.72	1.77
뉴질랜드	4.24	3.17	2.03	2.18	1.98	1.98	1.97	1.89	1.93	1.98	1.97	2.01	2.17	2.18
노르웨이	2.91	2.50	1.72	1.93	1.87	1.85	1.78	1.75	1.80	1.83	1.84	1.90	1.90	1.96
폴란드	2.98	2.20	2.28	1.99	1.55	1.37	1.32	1.25	1.22	1.23	1.24	1.27	1.31	1.39
포르투갈	3.10	2.83	2.18	1.56	1.41	1.56	1.46	1.47	1.44	1.40	1.41	1.36	1.33	1.37
슬로바키아	3.07	2.40	2.31	2.09	1.52	1.29	1.20	1.19	1.20	1.24	1.25	1.24	1.25	1.32
스페인	2.86	2.90	2.22	1.36	1.17	1.23	1.24	1.26	1.31	1.33	1.35	1.38	1.40	1.46
스웨덴	2.20	1.94	1.68	2.14	1.74	1.55	1.57	1.65	1.72	1.75	1.77	1.85	1.88	1.91
스위스	2.44	2.10	1.55	1.59	1.48	1.50	1.38	1.39	1.39	1.42	1.42	1.44	1.46	1.48
터키	6.40	5.00	4.63	3.07	2.75	2.27	2.25	2.24	2.22	2.23	2.20	2.17	2.15	2.14
영국	2.72	2.43	1.90	1.83	1.70	1.64	1.63	1.64	1.71	1.77	1.79	1.84	1.90	1.96
미국	3.65	2.48	1.84	2.08	1.98	2.06	2.03	2.01	2.04	2.05	2.05	2.10	2.12	2.09*
OECD 평균	<b>3.23</b>	<b>2.71</b>	<b>2.14</b>	<b>1.86</b>	<b>1.69</b>	<b>1.65</b>	<b>1.61</b>	<b>1.60</b>	<b>1.61</b>	<b>1.62</b>	<b>1.62</b>	<b>1.65</b>	<b>1.68</b>	<b>1.71*</b>

주: \*는 추정치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0. 10월.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합계출산율의 회복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합계출산율 수치에 있어서도 2002년 이후 계속해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8년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비교적 오랜 기간 초저출산율을 유지했던 슬로바키아로, 2008년 1.32명으로 나타나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난 수치를 보였다.

## 제2절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

### 1. 저출산 정책 추진 경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5~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2006년 기본계획 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지역 순회 간담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2006년 정부 합동으로 새로맞이 플랜이라 불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발표되었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그 동안 시행되어 온 기본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주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 도입 및 기존 정책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신규과제 발굴’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종 자문회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관계 부처 의

건 수립 등을 통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2010년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끝나는 해로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을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관계 부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10년 9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및 이 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개된 2차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어느 정도 2차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2. 저출산 정책 내용

구체적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원판 및 보완판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통해 추진되어 온,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저출산 정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원판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추진목표로 하여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저출산·고령사회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4대 분야의 237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 중 저출산 부분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을 보면, 또 다시 3개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들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들, 임신·출산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로 이루어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이다.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진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이며,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조성하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이 있다.

2008년 12월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판과 비교했을 때 비전과 목표는 그대로이되, 세부 추진과제가 조금씩 변경되었다. 즉,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새로이 도입된 정책들과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계획이 반영되었는데, 저출산 영역만 보면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새로이 도입된 정책들로는 드림스타트나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새로이 반영된 정책들로는 신혼부부 보증자리 주택 공급(이에 따라 ‘신혼부부 출발지원’이라는 영역이 새로 생김)이나 양육지원 수당,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과 같은 사업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에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점진적 출산을 회복 기반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정책목표로 하여 4대 분야 227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저출산 영역만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일상화’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1차 기본계획과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추진 방향에서도 정책 대상을 저소득 가정 중심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보육 지원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 3. 가치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가치관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그리고 향후 시행할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에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소영역이 들어 있다. 정책 내용으로는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와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인데,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

여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등학생용 인구교육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고,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과 아동·청소년 이외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진 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직장인, 군인,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사회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협력사업을 개발하며 생애 주기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 강화 사업이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사업에는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하여 지역아동 센터나 청소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책들은 가치관 교육이라는 직접적인 정책인데, 제1차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정책 외에도 간접적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방송·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관련 자료를 기자나 PD, 방송작가 등에게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출산·가족친화적 우수 프로그램 시상 등을 통해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정책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종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신혼부부·예비부부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 지원 등도 직접적인 가치관 교육은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가치나 자녀에 대한 가치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9월에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가치관과 관련하여 1차 기본계획에 있는 정책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인구의 날(7.11)’을 제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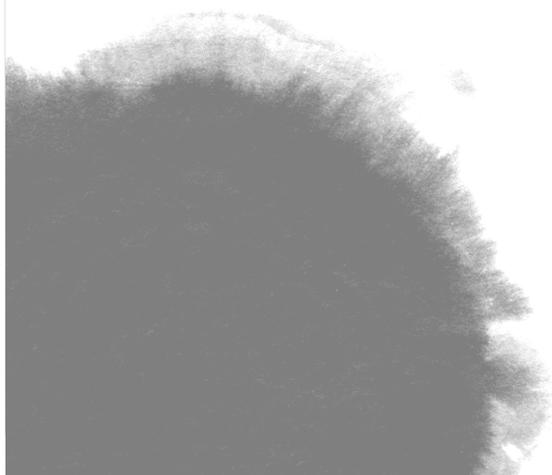
가하였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저출산이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계, 경제계, 출산양육 후원단체, 교육계, 여성계, 학계, 의료계, 언론계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단체이다. 이 운동본부에서는 결혼·출산·양육·가족문화 등에 대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구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이애주 의원 등이 국회에 ‘인구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는데(2010년 7월 14일), 이 법안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당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현상 및 인구변동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구교육 제도의 마련과 이에 관한 지원 등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구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인구교육을 ‘출생·사망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사회변동 현상,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의 형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치관을 포함한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05

## 출산관련 의식변화 분석





## 제5장 출산관련 의식변화 분석

본 장에서는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관련 의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계(명)
미혼 남성	2005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09	23.4	46.4	25.1	2.4	2.8	100.0(1,732)
미혼 여성	2005	12.9	36.3	44.9	3.7	2.2	100.0(1,205)
	2009	16.9	46.3	31.8	2.8	2.2	100.0(1,580)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80.

2005년 미혼남성의 29.4%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라고 응답하였으나, 2009년에는 23.4%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2005년에는 12.9%의 여성들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였으나, 2009년에는 16.9%로 비율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미혼남녀 모두 변화를 보였으나, 그 변화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미혼남성들은 경제적 안정 등의 이유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남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역시 2005년과 2009년 사이 변화가 보였다. 2005년에 미혼남성의 19.4%만이 32-34세가 적령기라고

생각했으나, 2009년에는 34.0%가 적령기라고 생각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29세 이하가 적령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30세 이상이 적령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예전과 비교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20대의 수가 늘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과 맞물려 20대 미혼남녀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과 소득이 있을 경우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적령기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2〉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계(명)	평균연령
미혼 남성	2005	8.4	22.6	45.3	19.4	4.3	100.0(1,460)	30.57
	2009	3.1	10.5	40.8	34.0	11.6	100.0(1,719)	31.76
미혼 여성	2005	30.6	36.3	27.0	5.3	0.8	100.0(1,199)	28.94
	2009	21.2	34.2	34.0	9.0	1.7	100.0(1,572)	29.45

주: 미혼남성의 응답은 이상적 '남성'의 결혼연령, 미혼여성의 응답은 이상적 '여성'의 결혼연령임.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87, p.88.

성역할관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2005년에 비하여 2009년에 남녀 모두 매우 혹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20대의 취업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취업자 자료<sup>21)</sup>에 따르면 20~29세 남녀의 취업자 수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자 사회진출에 대한 성역할관이 전통적 가치관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표 5-3 참조).

자녀출산 희망에 대한 응답은 큰 변화를 보였다. 2005년 미혼남성의 경우 “반드시 가지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였으나, 2009년에는

21) 통계청, KOSIS, 성/연령별 취업자, 2010.

24.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5년에는 42.1%였던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의견의 비율이 2009년에는 24.2%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큰 폭의 변화는 자녀양육비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표 5-4 참조).

〈표 5-3〉 미혼남녀(20~44세)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명)
미혼 남성	2005	17.2	49.9	29.0	3.8	100.0(1,465)
	2009	20.4	49.3	27.2	3.1	100.0(1,733)
미혼 여성	2005	10.9	40.1	41.3	7.7	100.0(1,204)
	2009	17.4	47.6	29.0	6.0	100.0(1,579)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169.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124.

〈표 5-4〉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 싶다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은 생각 전혀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계(명)
미혼 남성	2005	54.4	38.7	3.5	0.7	2.8	100.0(1,449)
	2009	24.2	62.2	6.3	0.8	6.4	100.0(1,734)
미혼 여성	2005	42.1	46.6	6.6	1.0	3.6	100.0(1,188)
	2009	24.1	60.4	7.5	1.5	6.5	100.0(1,580)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192.

다음으로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진술에 있어서 ‘매우 찬성’한다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자녀로부터 노후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과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있어서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 혹은 부부와 관련된 진술의 경우 ‘매

우 찬성'의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집안의 대를 잇는다거나 자녀출산이 사회적 의무라는 보다 사회적인 의미와 관련한 자녀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 가치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표 5-5〉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단위: %)

자녀가치(효용)	연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b>미혼남성</b>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2005	50.5	44.5	4.3	0.7	100.0
	2009	30.0	56.3	13.0	0.7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2005	45.3	48.5	5.6	0.6	100.0
	2009	29.2	55.4	14.7	0.8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005	35.1	45.5	16.5	2.9	100.0
	2009	24.3	54.4	18.0	3.4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	11.1	32.8	46.2	9.8	100.0
	2009	11.3	39.3	38.1	11.3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005	15.0	33.5	40.3	11.1	100.0
	2009	13.7	41.0	33.0	12.4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2005	10.6	30.1	45.7	13.6	100.0
	2009	11.9	43.4	34.5	10.1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2005	12.8	47.5	34.6	5.2	100.0
	2009	9.5	48.5	34.3	7.7	100.0
2009	6.9	43.4	36.9	12.8	100.0	
<b>미혼여성</b>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2005	43.2	49.3	6.7	0.7	100.0
	2009	28.8	59.0	11.3	1.0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2005	35.8	54.9	8.6	0.7	100.0
	2009	30.8	54.9	13.4	0.9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005	32.0	47.2	18.4	2.4	100.0
	2009	23.6	54.6	18.0	3.7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	7.7	35.5	47.8	9.0	100.0
	2009	10.3	40.4	38.5	10.8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005	6.5	23.4	51.9	18.3	100.0
	2009	10.4	38.5	37.3	13.8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2005	6.1	29.4	50.2	14.3	100.0
	2009	10.7	44.4	34.1	10.8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2005	8.0	42.6	42.0	7.4	100.0
	2009	8.1	47.5	36.1	8.2	100.0
2009	7.0	47.4	36.5	9.1	100.0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232.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173.

자녀를 가진다면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매우 찬성’ 응답률이 미혼여성보다 2005년과 2009년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변화를 본다면 미혼남성의 ‘매우 찬성’ 응답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미혼여성의 경우 ‘매우 찬성’에 대한 응답률이 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명)
2005	10.8	38.5	42.4	7.2	1.1	100.0(3,801)
2009	13.8	48.7	30.5	4.9	2.1	100.0(3,570)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189.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243.

기혼여성의 출산관련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편이 좋다’라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2005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소폭이지만 상승하였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응답은 2.3%p 감소하였다.

기혼여성의 성역할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 내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부부의 역할에 전적으로 찬성한 기혼여성의 비중은 2005년에 23.1%, 2009년에도 역시 23.1%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로 찬성이라고 답한 기혼여성 비중은 2005년 42.7%에서 2009년 55.3%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별로 찬성하지 않은 경우는 30.1%(2005년)에서 19.6%(2009년)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표 5-7 참조).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가족 생계 책임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57.4%(2005년), 77.7%(2009년)가 찬성하여, 위의 직업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주체는 ‘남성’으로 여기는 비중이

더 커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전통적 가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 모두가 기혼여성에게 부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5-8 참조).

〈표 5-7〉 기혼여성(20-44세)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2005	23.1	42.7	30.1	4.2	100.0(3,800)
2009	23.1	55.3	19.6	2.0	100.0(3,560)

주: 2005년 조사에서는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매우 반대’였음.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203.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263.

〈표 5-8〉 기혼여성(20-44세)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2005	18.7	38.7	38.2	4.4	100.0(3,800)
2009	22.5	55.2	21.0	1.3	100.0(3,561)

주: 2005년 조사에서는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매우 반대’였음.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207.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266.

기혼여성의 일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전일제 취업자의 경우 2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비중은 11.2%에서 13.4%로 소폭 상승하였고,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2자녀를 둔 비중이 15.0%에서 19.4%로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시간제 취업자의 경우 2자녀의 비중이 54.3%에서 39.4%

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5년, 2009년 모두 시간제 취업자의 2자녀 비중이 전일제 취업자나 비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일제 보다는 유동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의 2자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기혼여성의 비취업으로 인한 흠뻑이 보다는 시간제 취업이지만 맞벌이일 경우 소득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으므로 비취업 기혼 여성보다는 시간제 취업 기혼여성의 2자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9〉 기혼여성(20~44세)의 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명)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2005	2.0	5.9	11.2	0.5	10.0	54.3	0.1	0.9	15.0	100.0(3,801)
2009	2.7	10.2	13.4	1.2	9.9	39.4	0.6	3.2	19.4	100.0(3,430)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247.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373.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도 변화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개인 혹은 부부와 관련된 진술에 있어서는 ‘매우 찬성’이라고 답한 조사대상자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보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자녀가치관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에 대한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진술에 매우 찬성이라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005년 63.3%에서 2009년 40.6%로 20%p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가 부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준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는 두는 것, 자녀를 가지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이라고 답한 기혼여성의 비중이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혹은 부부 차원에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다소 전통적 자녀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나, 사회적, 즉, 대의적 자녀가치관

은 오히려 전통적 자녀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에 대한 성향이 다소 중립적 입장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겠다. ‘매우 찬성’으로 답변한 비중이 대체로 줄어든 대신 ‘대체로 찬성’으로 답변한 경우가 늘어났으며, ‘매우 찬성’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이 늘었다 하더라도 ‘대체로 찬성’으로 응답한 비중에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5-10〉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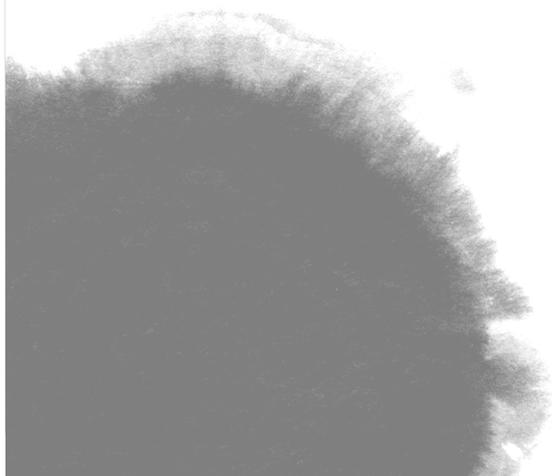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단위: %)

진술	연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2005	63.3	34.3	2.3	0.1	100.0
	2009	40.6	55.0	4.0	0.4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2005	60.3	35.5	3.8	0.3	100.0
	2009	42.0	49.1	8.4	0.5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005	36.7	42.2	19.3	1.8	100.0
	2009	28.2	53.3	16.2	2.3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	3.7	17.6	63.3	15.4	100.0
	2009	11.9	36.6	39.5	12.0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005	7.5	19.7	54.0	18.9	100.0
	2009	11.5	36.5	37.4	14.6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2005	7.8	30.1	47.1	15.1	100.0
	2009	11.9	43.7	34.6	9.8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2005	9.0	39.7	42.5	8.9	100.0
	2009	11.3	52.3	29.9	6.4	100.0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2009	11.0	45.3	34.8	8.9	100.0

자료: 2005년은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p.249.  
2009년은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 p.363.

# 06

##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의 인과관계 분석





# 제6장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의 인과관계 분석

## 제1 절 경로분석이란

경로분석은 유전학자였던 S. Wright가 1918년 그의 연구<sup>22)</sup>에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상관이라는 계량적 정보에 그러한 상관을 만들어낸 인과관계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결합하고자 Wright는 경로분석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즉, 경로분석은 상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가설을 입증해 보이는 분석으로써, 변수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수리적으로는 연립구조방정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경로분석이 회귀분석과 다른 점은, 경로분석은 변수간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회귀분석은 단순히 예측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로분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과적 순서가 알려져 있다는 전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sup>23)</sup>. 첫째, 설정된 경로모델에 이론적 결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변수가 누락되거나 혹은 부적절한 변수가 포함된다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설정오차(specification error)가 없어야 한다. 둘째, 측정오차는 경로계수 및 효과계수의 추정을 부정확하게 하므로 관찰변수는 측정오차 없이 관찰되어야 한다. 셋째, 변수간의 관계는

22) Wright, S.(1918). On the Nature of Size Factors, *Genetics*, 3, 367~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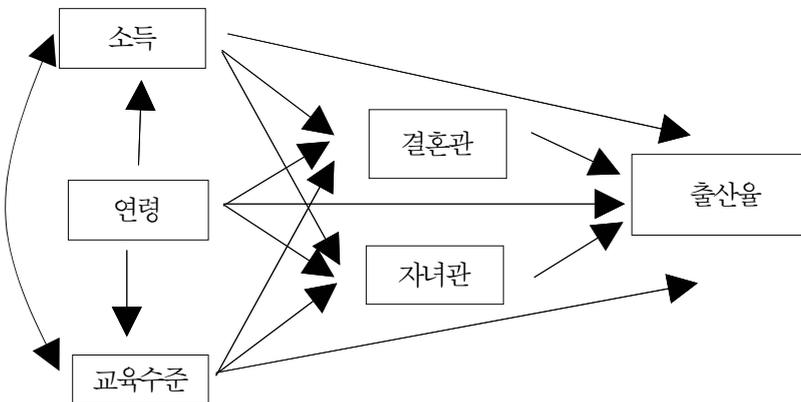
23)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도서출판 청람, pp. 102-103.

선형이며, 가법적이어야 한다. 넷째, 모든 변수들은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잔차와 관련하여 잔차의 기댓값은 0이고, 정규분포를 이루며,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지니고,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제2절 연구모델 구성

본 연구는 2005년도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관련 의식 변화와 출산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6-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할 인구사회학적 관찰변수, 출산관련 의식 관찰변수, 그리고 출산율의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6-1] 경로모형



출산관련 의식(결혼관 및 자녀관), 출산관련 의식 외의 변수(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소득, 교육수준), 그리고 출산율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이 구성했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출산율간의 직접적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출산관련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출산관련 의식을 매개로 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경로분석모형을 미혼 남녀와 기혼여성 취업/비취업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관찰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출산율에 사용된 관찰변수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추가 출산 자녀수<sup>24)</sup>를 사용하였고, 미혼자의 경우 이상적인 자녀수를 사용하였다.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결혼에 대한 생각’ 설문문을 사용하였으며, ‘하지 않는게 낫다’를 1로, ‘반드시 해야 한다’를 4로 보았다. 자녀관의 관찰변수로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찬성하지 않음’을 1로 보고, ‘전적으로 찬성’을 4로 보았다. 결혼관과 자녀관 관련한 응답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결혼관의 경우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수와 추가 출산계획 자녀수 항목에서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 자녀수의 경우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한 ‘비해당’의 경우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관련 가치관 외의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찰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 6-1>과 <표 6-2>에서 살펴보았다. 미혼자의 경우, 2005년과 2009년 모두 취업자 비중이 5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2005년에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비구직)의 비중이 비슷하였으나, 2009년에는 취업자의 비중이 8%p가량 감소하고, 비취업자(구직 및 비구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4)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기출산 자녀수는 과거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그리고 가치관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즉, 미혼집단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관찰변수들의 향후 출산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 자녀 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출산 순위를 통제한 추가 출산 자녀 수에 대한 분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6-1〉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단위: 명, %, 세)

		2005				2009			
		미혼		기혼		미혼		기혼	
		N	%	N	%	N	%	N	%
성별	남	1,446	55.2	-	-	1,577	53.1	-	-
	여	1,173	44.8	-	-	1,391	46.9	-	-
연령	20~29세	2,030	77.5	458	13.5	2,288	77.1	342	11.5
	30~39세	533	20.4	1,994	58.7	582	19.6	1,690	56.6
	40~44세	56	2.1	943	27.8	98	3.3	952	31.9
	평균(SD)	26.20(4.98)		35.69(5.24)		26.38(5.44)		36.35(5.05)	
학력	초졸 이하	15	0.6	54	1.6	12	0.4	14	0.5
	중졸	55	2.1	217	6.4	30	1.0	68	2.3
	고졸	1,436	54.8	1,935	57.0	1,645	55.4	1,607	53.9
	대졸	1,030	39.3	1,122	33.0	1,216	41.0	1,251	41.9
	대학원 재학이상	83	3.2	67	2.0	65	2.2	44	1.5
취업 여부	취업중	1,555	59.4	1,613	47.5	1,495	50.4	1,181	39.6
	비취업(구직)	358	13.7	202	5.9	367	12.4	442	14.8
	비취업(비구직)	706	27.0	1,580	46.5	1,106	37.3	1,361	45.6
소득 <sup>1)</sup>	0원	1,095	41.8	28	0.8	1,473	49.6	-	-
	1~100만원	564	21.5	161	4.7	296	10.0	87	2.9
	101~200만원	810	30.9	1,054	31.0	888	29.9	641	21.5
	101~300만원	119	4.5	1,119	33.0	278	9.4	1,008	33.8
	301~400만원	18	0.7	503	14.8	25	0.8	688	23.1
	401~500만원	9	0.3	311	9.2	7	0.2	374	12.5
	501만원 이상	4	0.2	219	6.5	1	0.0	186	6.2
	평균(SD)	83(89)		290(156)		86(98)		327(166)	
계	2,619	100.0	3,395	100.0	2,968	100.0	2,984	100.0	

주: 1) 소득의 경우 기혼은 가구소득, 미혼은 근로소득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면,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2005년과 2009년 모두 미혼자의 경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22.4%와 21.1%인 반면에, 기혼자의 경우 11.2%와 14.0%를 차지하여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보면,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05년과 2009년 모두 기혼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미혼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6-2〉 분석 대상자의 가치 관련 변수

(단위: 명, %)

		2005				2009			
		미혼		기혼		미혼		기혼	
		N	%	N	%	N	%	N	%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관)	하지 않는게 낫다	69	2.6	231	6.8	58	2.0	109	3.7
	해도, 하지 않아도 좋다(모르겠다)	921	35.2	1,435	42.3	851	28.7	985	33.0
	하는 편이 좋다	1,042	39.8	1,349	39.7	1,433	48.3	1,471	49.3
	반드시 해야 한다	587	22.4	380	11.2	626	21.1	419	14.0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임 (자녀관)	전혀 찬성하지 않음	15	0.6	4	0.1	16	0.5	13	0.4
	별로 찬성하지 않음	132	5.0	69	2.0	335	11.3	114	3.8
	대체로 찬성	1,219	46.5	1,138	33.5	1,731	58.3	1,653	55.4
	전적으로 찬성	1,253	47.8	2,184	64.3	886	29.9	1,204	40.3
이상적인 자녀수(미혼)/ 추가자녀 계획수(기혼)	0명	33	1.3	2,792	82.2	60	2.0	2,447	82.0
	1명	350	13.4	440	13.0	744	25.1	388	13.0
	2명	1,740	66.4	140	4.1	1,805	60.8	133	4.5
	3명	433	16.5	19	0.6	319	10.7	16	0.5
	4명	48	1.8	3	0.1	32	1.1	-	-
	5명 이상	15	0.6	1	0.0	8	0.3	-	-
계		2,619	100.0	3,395	100.0	2,968	100.0	2,984	100.0

### 제3절 분석결과

각 변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구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인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자녀관, 그리고 출산결정의 상관은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sup>25)</sup>.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25) 부록참조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관, 결혼관, 출산결정의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9년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해당년도에 대하여 기혼여성 전체, 기혼 취업여성, 기혼 비취업여성, 미혼전체, 미혼여성, 미혼남성 등의 여섯 개 집단에 대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율과 출산관련 의식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 기혼자 집단의 경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업/비취업자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미혼자의 경우는 남/녀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로분석 자체의 수학적 추정방법은 매우 복잡하지만, 추정을 통한 경로계수는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와 같이 해석하면 되므로 추정을 통해 얻은 경로모델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회귀계수와는 다르게 경로계수는 주어진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로분석에서 경로계수는 예측력인 동시에 설명력을 의미한다(문수백, 2009). 경로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를 얻을 수 있는데, 표준화계수는 경로계수 간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계수는 직접적 인과효과와 간접적 인과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관찰변수들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직접적 인과효과는 다른 관찰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에 관찰될 수 있는 인과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한 번의 경로, 즉, 화살표로 한 번만 연결된 관찰변수와 관찰변수간의 인과적 효과이다. 반면에 간접적 인과효과는 다른 관찰변수(매개변수)를 거치는 인과적 효과이다. 그리고 이들 직접적 인과효과와 간접적 인과효과의 합을 우리는 (총)인과효과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델의 모델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GFI(Goodness-of-Fit Index)를 사용하였다<sup>26)</sup>. GFI는 모델이 없을 경우에 비해 설정된 연구모델이 얼마나 자료를 더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적

26) 각 집단의 적합도는 부록의 표 참조

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라고도 불린다. GFI=1.0은 완벽한 부합도를 나타내고 GFI >.90은 양호한 적합도 그리고 GFI가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최악의 적합도를 나타낸다(문수백, 2009).

그러면 각 해당년도 미혼집단의 경로분석의 결과부터 살펴본 후 기혼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미혼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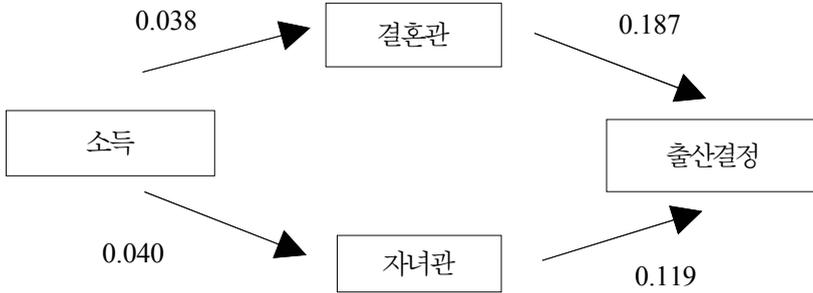
### 가.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경로분석

인구사회학적 관찰변수들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 (-0.087)가 통계적 유의수준 ( $\alpha=0.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 및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미혼자 집단의 경우 소득을 고려한 출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 등이 문제가 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되어진다.

총간접효과는 각각의 직접효과의 곱들을 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소득의 출산결정에 대한 총간접효과를 살펴보자. 총간접효과를 보기 위하여 전체 경로모형에서 소득과 관련된 경로만 [그림 6-2]에 옮겨 보았다.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 (0.038)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187)의 곱인 0.0071과 소득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0.040)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119)의 곱인 0.0048을 합한 0.012(=0.0071+0.0048)가 총간접효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간접적 인과효과는 그 유의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소득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관련 가치관을 매개로 할 때 소득수준이 1단위 상승할 때, 출산결정(이상적인 자녀수)이 0.012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소득의 증가는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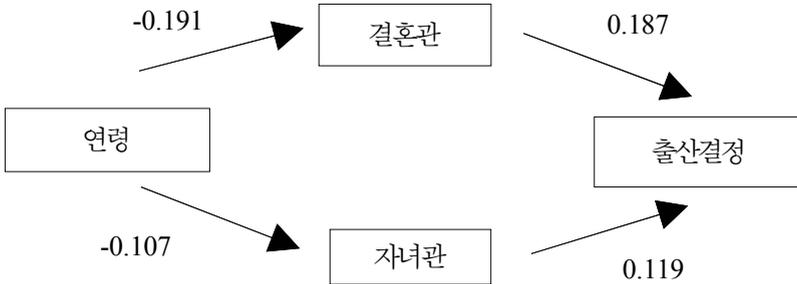
[그림 6-2]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소득수준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소득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았을 때는 소득과 출산결정 간에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으나, 출산관련 의식을 매개로 하면 소득과 출산결정 간에 정(+)의 인과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과 출산결정의 관계만 분석하는 것은 개인 혹은 부부의 출산에 대한 결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출산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치관적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의 인과적 효과를 보면,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0.191이고,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0.187이므로, 그들의 곱은 -0.0357이다. 연령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0.107이고,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0.119이므로, 그들의 곱은 -0.0127로 계산되며,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총간접효과는 -0.049(=-0.0357+-0.0127)가 된다. 연령이 가지는 부(-)의 인과효과는 소득이 가지는 정(+)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집단의 경우 가치관을 매개로 했을 때, 소득보다 연령의 인과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간접적 인과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수준 ( $\alpha=0.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그 외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분석 중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로는 교육수준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51,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191로 나타났다. 자녀관에 대해서는 연령만이 유의미한 인과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0.107이었다. 출산결정에 대한 가치관들의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면, 결혼관과 자녀관 모두 정(+)의 인과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0.187, 0.119였다. 즉, 결혼이나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는 증가하는 것이다.

<표 6-3>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38	.000	.000	1.774	.076
자녀관	← 소득	.040	.000	.000	1.861	.063
결혼관	← 연령	<b>-.191</b>	<b>-.026</b>	<b>.003</b>	<b>-9.313</b>	<b>***</b>
자녀관	← 연령	<b>-.107</b>	<b>-.012</b>	<b>.002</b>	<b>-5.151</b>	<b>***</b>
결혼관	← 교육수준	<b>.051</b>	<b>.065</b>	<b>.025</b>	<b>2.629</b>	<b>***</b>
자녀관	← 교육수준	-.017	-.018	.021	-.850	.395
출산결정	← 소득	<b>-.087</b>	<b>-.001</b>	<b>.000</b>	<b>-4.125</b>	<b>***</b>
출산결정	← 연령	-.020	-.002	.003	-.954	.340
출산결정	← 교육수준	.010	.012	.023	.521	.603
출산결정	← 결혼관	<b>.187</b>	<b>.172</b>	<b>.017</b>	<b>10.325</b>	<b>***</b>
출산결정	← 자녀관	<b>.119</b>	<b>.130</b>	<b>.019</b>	<b>6.672</b>	<b>***</b>

주: \*\*\* p<.05임.

〈표 6-4〉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17	.000	-.017
결혼관 ← 교육수준	.051	.000	.051
출산결정 ← 교육수준	.010	.008	.018
자녀관 ← 연령	-.107	.000	-.107
결혼관 ← 연령	-.191	.000	-.191
출산결정 ← 연령	-.020	-.049	-.068
자녀관 ← 소득	.040	.000	.040
결혼관 ← 소득	.038	.000	.038
출산결정 ← 소득	-.087	.012	-.075
출산결정 ← 자녀관	.119	.000	.119
출산결정 ← 결혼관	.187	.000	.187

〈표 6-5〉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111	.001	.036	...	...

#### 나.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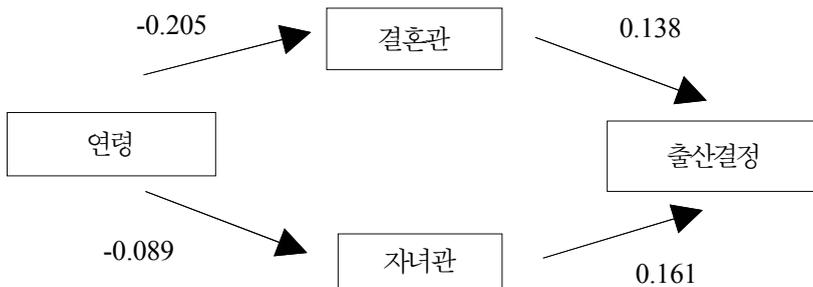
2009년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했을 때,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변수들(소득, 연령,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면, 소득과 연령의 경로계수는 각각 -0.118, -0.097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미혼여성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상적 자녀수가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시 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증가는 높은 사회생활 참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출산 연기 혹은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총간접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 (-0.205)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138)의 곱인 -0.0283과 연령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 (-0.089)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161)의 곱인 -0.0143을 합한 -0.043 (=(-0.0283) + (-0.0143))가 총간접효과이다. 즉, 연령과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자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 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총간접효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6-4]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표 6-6>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28	.000	.000	.887	.375
자녀관	← 소득	-.012	.000	.000	-.361	.718
결혼관	← 연령	<b>-.205</b>	<b>-.030</b>	<b>.004</b>	<b>-6.724</b>	<b>***</b>
자녀관	← 연령	<b>-.089</b>	<b>-.011</b>	<b>.004</b>	<b>-2.872</b>	<b>***</b>
결혼관	← 교육수준	.052	.066	.037	1.774	.076
자녀관	← 교육수준	-.003	-.003	.032	-.105	.916
출산결정	← 소득	<b>-.118</b>	<b>-.001</b>	<b>.000</b>	<b>-3.803</b>	<b>***</b>
출산결정	← 연령	<b>-.097</b>	<b>-.013</b>	<b>.004</b>	<b>-3.210</b>	<b>***</b>
출산결정	← 교육수준	.040	.049	.035	1.402	.161
출산결정	← 결혼관	<b>.138</b>	<b>.131</b>	<b>.025</b>	<b>5.273</b>	<b>***</b>
출산결정	← 자녀관	<b>.161</b>	<b>.181</b>	<b>.029</b>	<b>6.266</b>	<b>***</b>

주: \*\*\* p<.05임.

그 외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분석 중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로는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205, 연령의 자녀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89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해서는 결혼관과 자녀관 모두 정(+)의 직접적 인과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0.138과 0.161이었다. 즉,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가 높은 원인이 된다.

〈표 6-7〉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03	.000	-.003
결혼관 ← 교육수준	.052	.000	.052
출산결정 ← 교육수준	.040	.007	.047
자녀관 ← 연령	-.089	.000	-.089
결혼관 ← 연령	-.205	.000	-.205
출산결정 ← 연령	-.097	-.043	-.139
자녀관 ← 소득	-.012	.000	-.012
결혼관 ← 소득	.028	.000	.028
출산결정 ← 소득	-.118	.002	-.116
출산결정 ← 자녀관	.161	.000	.161
출산결정 ← 결혼관	.138	.000	.138

〈표 6-8〉 2009년 미혼여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331	.001	.7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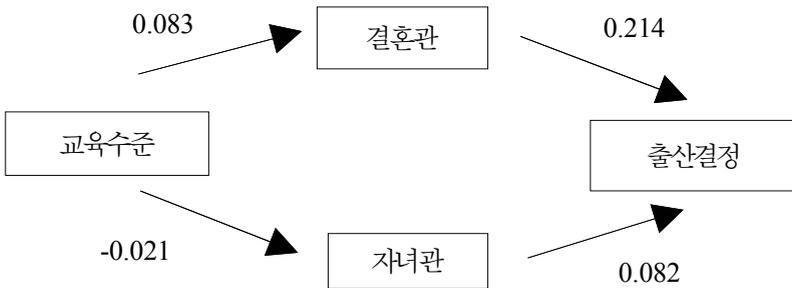
#### 다.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경로분석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관찰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 모두가 출산결정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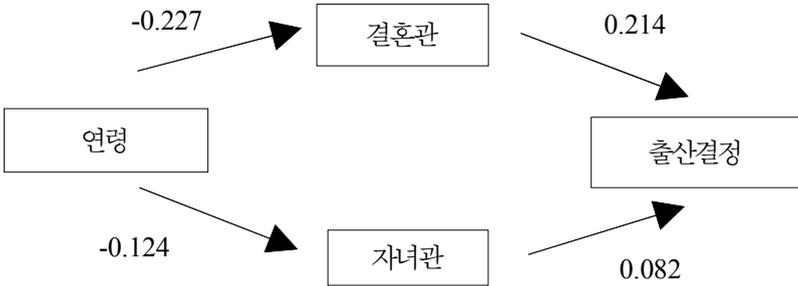
다음으로 총간접효과를 보면, 교육수준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 (0.083)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214)의 곱인 0.0178과 교육수준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 (-0.021)과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082)의 곱인 -0.0017를 합한 0.016 (=0.0178 + (-0.0017))이 총간접효과로 계산된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관련 의식을 매개로할 때 이상적인 자녀수가 높아지는 인과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5]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교육수준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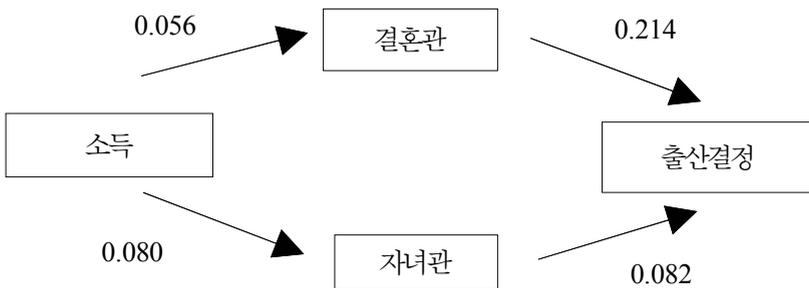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총간접효과를 보면(그림 6-6 참조),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0.227)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214)의 곱인 -0.0486과 연령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 (-0.124)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082)의 곱인 -0.0102를 합한 -0.059(=-0.0486)+(-0.0102))가 총간접효과이다.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총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 되었으며, 연령이 1세 증가하는 것은 이상적인 자녀수가 0.059명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림 6-6]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 (0.056)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214)의 곱인 0.0120과 소득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 (0.080)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082)의 곱인 0.0066을 합한 0.019 (= 0.0120 + 0.0066) 이 총간접효과로 계산된다. 소득의 출산결정에 대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소득의 증가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0.019만큼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소득의 가치관을 매개로 한 출산결정에 대한 부(-)의 간접적 인과효과를 보여줬던 미혼여성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소득증가는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주게 되므로 출산결정에 정(+)의 인과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7]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소득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표 6-9〉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56	.000	.000	1.954	.051
자녀관	← 소득	<b>.080</b>	<b>.001</b>	<b>.000</b>	<b>2.747</b>	<b>***</b>
결혼관	← 연령	<b>-.227</b>	<b>-.030</b>	<b>.004</b>	<b>-8.193</b>	<b>***</b>
자녀관	← 연령	<b>-.124</b>	<b>-.014</b>	<b>.003</b>	<b>-4.378</b>	<b>***</b>
결혼관	← 교육수준	<b>.083</b>	<b>.104</b>	<b>.033</b>	<b>3.153</b>	<b>***</b>
자녀관	← 교육수준	-.021	-.022	.029	-.777	.437
출산결정	← 소득	-.054	.000	.000	-1.898	.058
출산결정	← 연령	.022	.003	.003	.777	.437
출산결정	← 교육수준	.002	.002	.030	.057	.954
출산결정	← 결혼관	<b>.214</b>	<b>.194</b>	<b>.023</b>	<b>8.529</b>	<b>***</b>
출산결정	← 자녀관	<b>.082</b>	<b>.087</b>	<b>.026</b>	<b>3.323</b>	<b>***</b>

주: \*\*\* p<.05임.

〈표 6-10〉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21	.000	-.021
결혼관	← 교육수준	.083	.000	.083
출산결정	← 교육수준	.002	.016	.018
자녀관	← 연령	-.124	.000	-.124
결혼관	← 연령	-.227	.000	-.227
출산결정	← 연령	.022	-.059	-.037
자녀관	← 소득	.080	.000	.080
결혼관	← 소득	.056	.000	.056
출산결정	← 소득	-.054	.019	-.035
출산결정	← 자녀관	.082	.000	.082
출산결정	← 결혼관	.214	.000	.214

〈표 6-11〉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010	.001	.019	...	...

2009년 미혼남성 집단의 분석 중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로는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227, 교육수준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83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인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에 대해서는 소득의 인과효과가 0.080, 연령의 인과효과가 -0.124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의 인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결혼관과 자녀관 모두 정(+)의 직접적 인과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0.214와 0.082였다. 즉,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은 이상적인 자녀수 증가의 원인인 것이다.

#### 라.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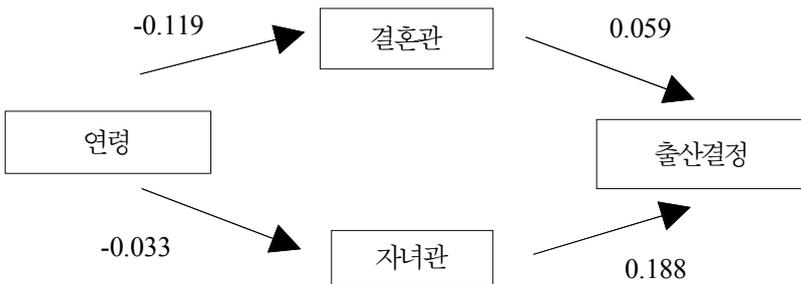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 (-0.048)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과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동 집단의 경우 소득의 부(-)의 직접적 인과효과만 유의미하였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총간접효과는 해당 관찰변수간의 직접경로계수들을 곱하여 합한 것인데, 우선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총간접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 (-0.119)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059)의 곱인 -0.007과 연령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 (-0.033)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 (0.188)를 곱한 -0.0062을 합한 -0.132 (=(-0.007)+(-0.0062))가 총간접효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간접적 인과효과는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총간접적 인과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관과 자녀관을 매개로 했을 때, 연령의 1세 증가 때문에 이상적인 자녀수

(출산결정)는 0.132명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령의 경우는 연령의 출산 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 간접적 인과효과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낸다. 연령을 제외한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8]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표 6-12>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53	.000	.000	2.439	***
자녀관	← 소득	-.004	.000	.000	-.187	.851
결혼관	← 연령	-.119	-.019	.003	-5.667	***
자녀관	← 연령	-.033	-.004	.003	-1.538	.124
결혼관	← 교육수준	.003	.004	.026	.147	.883
자녀관	← 교육수준	-.006	-.006	.020	-.291	.771
출산결정	← 소득	.004	.000	.000	.189	.850
출산결정	← 연령	-.048	-.007	.003	-2.303	***
출산결정	← 교육수준	-.019	-.021	.022	-.945	.345
출산결정	← 결혼관	.059	.050	.016	3.076	***
출산결정	← 자녀관	.188	.209	.021	9.830	***

주: \*\*\* p<.05임.

〈표 6-13〉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06	.000	-.006
결혼관 ← 교육수준	.003	.000	.003
출산결정 ← 교육수준	-.019	-.001	-.020
자녀관 ← 연령	-.033	.000	-.033
결혼관 ← 연령	-.119	.000	-.119
출산결정 ← 연령	-.048	-.013	-.061
자녀관 ← 소득	-.004	.000	-.004
결혼관 ← 소득	.053	.000	.053
출산결정 ← 소득	.004	.002	.006
출산결정 ← 자녀관	.188	.000	.188
출산결정 ← 결혼관	.059	.000	.059

〈표 6-14〉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823	.009	.626	...	...

마지막으로 2005년 미혼전체 집단의 분석 중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만 본다면,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경로계수 -0.119,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경로계수 0.05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결정에 대해서는 결혼관과 자녀관 모두 정(+)의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0.059, 0.188이었다. 즉, 2009년 미혼전체 집단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마.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경로분석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0.110)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 및 소득의 출산 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간접효과의 경우, 2005년 미혼여성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즉, 소득, 연령, 교육수준의 관찰변수들이 가치관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다.

직접효과를 보더라도 연령과 교육수준이 결혼관과 인과적 효과(-0.148, 0.065)가 있을 뿐이고 가치관 변수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효과도 자녀관(0.188)만 있을 뿐이다.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분석 결과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가치관 등 관찰변수들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관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5〉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04	.000	.000	.114	.910
자녀관	← 소득	-.008	.000	.000	-.248	.804
<b>결혼관</b>	<b>← 연령</b>	<b>-.148</b>	<b>-.025</b>	<b>.005</b>	<b>-4.745</b>	<b>***</b>
자녀관	← 연령	-.052	-.007	.004	-1.642	.101
<b>결혼관</b>	<b>← 교육수준</b>	<b>.065</b>	<b>.082</b>	<b>.039</b>	<b>2.119</b>	<b>***</b>
자녀관	← 교육수준	.032	.034	.033	1.050	.294
출산결정	← 소득	-.020	.000	.000	-.622	.534
<b>출산결정</b>	<b>← 연령</b>	<b>-.110</b>	<b>-.018</b>	<b>.005</b>	<b>-3.549</b>	<b>***</b>
출산결정	← 교육수준	-.025	-.031	.037	-.838	.402
출산결정	← 결혼관	.014	.013	.028	.484	.628
<b>출산결정</b>	<b>← 자녀관</b>	<b>.188</b>	<b>.216</b>	<b>.033</b>	<b>6.598</b>	<b>***</b>

주: \*\*\* p<.05임.

〈표 6-16〉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32	.000	.032
결혼관 ← 교육수준	.065	.000	.065
출산결정 ← 교육수준	-.025	.007	-.018
자녀관 ← 연령	-.052	.000	-.052
결혼관 ← 연령	-.148	.000	-.148
출산결정 ← 연령	-.110	-.012	-.122
자녀관 ← 소득	-.008	.000	-.008
결혼관 ← 소득	.004	.000	.004
출산결정 ← 소득	-.020	-.001	-.021
출산결정 ← 자녀관	.188	.000	.188
출산결정 ← 결혼관	.014	.000	.014

〈표 6-17〉 2005년 미혼여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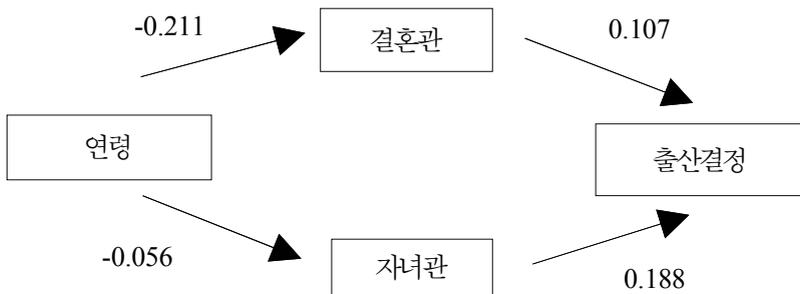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252	.108	.792	...	...

#### 바.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경로분석

교육수준, 연령 및 소득 모두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의 경우도 연령만이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간접효과는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0.211)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107)의 곱인 -0.0226과 연령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0.056)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188)의 곱인 -0.0105를 합한 -0.033(=(-0.0226)+(-0.0105))이 총간접효과로 계산된다. 이러한 연령의 총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 되었으며, 연령이 1세 높아지는 것은 이상적인 자녀수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효과만을 보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치관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는 이처럼 부(-)의 인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소득의 경우는 가치관을 매개하더라도 직접적 인과효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연령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표 6-18>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73	.001	.000	2.515	***
자녀관	← 소득	-.006	.000	.000	-.196	.844
결혼관	← 연령	-.211	-.033	.004	-7.520	***
자녀관	← 연령	-.056	-.006	.003	-1.958	***
결혼관	← 교육수준	.061	.078	.034	2.279	***
자녀관	← 교육수준	-.001	-.001	.026	-.048	.962
출산결정	← 소득	.010	.000	.000	.341	.733
출산결정	← 연령	.018	.002	.004	.627	.530
출산결정	← 교육수준	-.009	-.010	.028	-.345	.730
출산결정	← 결혼관	.107	.086	.021	4.067	***
출산결정	← 자녀관	.188	.203	.028	7.302	***

주: \*\*\* p<.05임.

〈표 6-19〉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01	.000	-.001
결혼관 ← 교육수준	.061	.000	.061
출산결정 ← 교육수준	-.009	.006	-.003
자녀관 ← 연령	-.056	.000	-.056
결혼관 ← 연령	-.211	.000	-.211
출산결정 ← 연령	.018	-.033	-.015
자녀관 ← 소득	-.006	.000	-.006
결혼관 ← 소득	.073	.000	.073
출산결정 ← 소득	.010	.007	.017
출산결정 ← 자녀관	.188	.000	.188
출산결정 ← 결혼관	.107	.000	.107

〈표 6-20〉 2005년 미혼남성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299	.001	.398	...	...

그 밖의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로는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73, 연령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211, 교육수준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61로 나타났다. 자녀관에 대해서는 단지 연령만이 -0.056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효과를 보였다. 출산결정에 대해서는 결혼관과 자녀관 모두 정(+)의 인과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0.107, 0.188이었다. 즉, 앞서 본 다른 미혼집단들과 마찬가지로 2005년 미혼남성들의 경우도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이상적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2. 기혼여성

### 가.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경로분석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0.122)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과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56	.000	.000	3.019	***
자녀관	← 소득	.056	.000	.000	3.010	***
결혼관	← 연령	-.006	-.001	.003	-.341	.733
자녀관	← 연령	-.009	-.001	.002	-.474	.635
결혼관	← 교육수준	.062	.070	.021	3.268	***
자녀관	← 교육수준	-.041	-.032	.015	-2.190	***
출산결정	← 소득	.009	.000	.000	.480	.631
출산결정	← 연령	-.122	-.069	.010	-6.752	***
출산결정	← 교육수준	.016	.070	.081	.865	.387
출산결정	← 결혼관	-.005	-.017	.065	-.268	.789
출산결정	← 자녀관	.025	.142	.095	1.495	.135

주: \*\*\* p<.05임.

총간접효과의 경우,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즉, 소득, 연령, 교육수준의 관찰변수들이 가치관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면,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56, 교육수준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62로 나타났다. 자녀관에 대해서는 소득의 직접적 인과효과가 0.056, 교육수준의 직접적 인과효과가 -0.041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해서도 결혼관과 자녀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직접적 인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41	.000	-.041
결혼관 ← 교육수준	.062	.000	.062
출산결정 ← 교육수준	.016	-.001	.015
자녀관 ← 연령	-.009	.000	-.009
결혼관 ← 연령	-.006	.000	-.006
출산결정 ← 연령	-.122	.000	-.122
자녀관 ← 소득	.056	.000	.056
결혼관 ← 소득	.056	.000	.056
출산결정 ← 소득	.009	.001	.010
출산결정 ← 자녀관	.025	.000	.025
출산결정 ← 결혼관	-.005	.000	-.005

〈표 6-23〉 20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304	.657	.076	...	...

#### 나.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경로분석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0.496)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과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간접효과의 경우,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즉, 소득, 연령, 교육수준의 관찰변수들이 가치관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6-24〉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58	.000	.000	1.927	.054
자녀관 ← 소득	-.009	.000	.000	-.297	.766
결혼관 ← 연령	.057	.009	.005	1.883	.060
자녀관 ← 연령	.034	.004	.004	1.120	.263
결혼관 ← 교육수준	.013	.017	.040	.429	.668
자녀관 ← 교육수준	-.011	-.011	.030	-.357	.721
출산결정 ← 소득	-.023	.000	.000	-.873	.382
<b>출산결정 ← 연령</b>	<b>-.496</b>	<b>-.056</b>	<b>.003</b>	<b>-18.951</b>	<b>***</b>
출산결정 ← 교육수준	.047	.045	.026	1.749	.080
출산결정 ← 결혼관	.039	.029	.019	1.555	.120
출산결정 ← 자녀관	-.017	-.016	.025	-.665	.506

주: \*\*\* p<.05임.

〈표 6-25〉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11	.000	-.011
결혼관 ← 교육수준	.013	.000	.013
출산결정 ← 교육수준	.047	.001	.048
자녀관 ← 연령	.034	.000	.034
결혼관 ← 연령	.057	.000	.057
출산결정 ← 연령	-.496	.002	-.494
자녀관 ← 소득	-.009	.000	-.009
결혼관 ← 소득	.058	.000	.058
출산결정 ← 소득	-.023	.002	-.021
출산결정 ← 자녀관	-.017	.000	-.017
출산결정 ← 결혼관	.039	.000	.039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이는 관찰변수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그리고 출산관련 가치변수들과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연령을 제외

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들의 출산결정에 대한 분석의 경우 결혼관 및 자녀관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예를 들면, 성역할 관 혹은 일-가정 양립관 등의 가치관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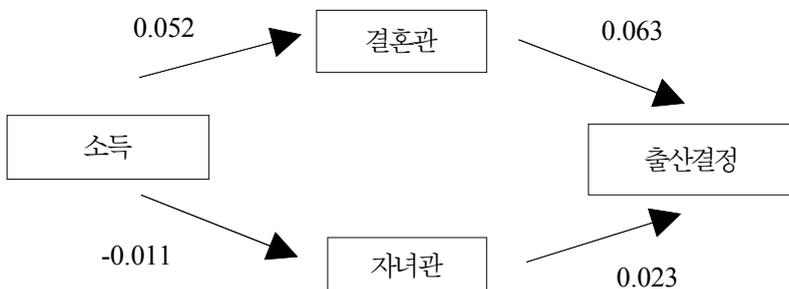
〈표 6-26〉 2009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730	.367	.215	...	...

#### 다.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경로분석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0.411)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과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0]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소득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총간접효과는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0.052)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063)의 곱인 0.0033과 소득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0.011)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023)의 곱인 -0.0003를 합한 -0.003(=0.0033+(-0.0003))이 총간접효과로 계산된다. 이러한 소득의 총간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 되었으며, 소득이 증가할 수록 이 상적인 자녀수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연령의 경우는 가치관을 매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7〉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b>결혼관</b>	← <b>소득</b>	<b>.052</b>	<b>.000</b>	<b>.000</b>	<b>2.751</b>	<b>***</b>
자녀관	← 소득	-.011	.000	.000	-.594	.552
<b>결혼관</b>	← <b>연령</b>	<b>.014</b>	<b>.002</b>	<b>.003</b>	<b>.749</b>	<b>.454</b>
자녀관	← 연령	-.014	-.002	.002	-.724	.469
<b>결혼관</b>	← <b>교육수준</b>	<b>-.020</b>	<b>-.025</b>	<b>.024</b>	<b>-1.044</b>	<b>.296</b>
자녀관	← 교육수준	-.002	-.002	.019	-.116	.907
출산결정	← 소득	.004	.000	.000	.215	.830
<b>출산결정</b>	← <b>연령</b>	<b>-.411</b>	<b>-.045</b>	<b>.002</b>	<b>-23.968</b>	<b>***</b>
출산결정	← 교육수준	.023	.022	.016	1.344	.179
<b>출산결정</b>	← <b>결혼관</b>	<b>.063</b>	<b>.047</b>	<b>.012</b>	<b>3.783</b>	<b>***</b>
출산결정	← 자녀관	.023	.022	.016	1.393	.163

주: \*\*\* p<.05임.

〈표 6-28〉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02	.000	-.002
결혼관 ← 교육수준	-.020	.000	-.020
출산결정 ← 교육수준	.023	-.001	.022
자녀관 ← 연령	-.014	.000	-.014
결혼관 ← 연령	.014	.000	.014
출산결정 ← 연령	-.411	.001	-.410
자녀관 ← 소득	-.011	.000	-.011
결혼관 ← 소득	.052	.000	.052
출산결정 ← 소득	.004	.003	.007
출산결정 ← 자녀관	.023	.000	.023
출산결정 ← 결혼관	.063	.000	.063

〈표 6-29〉 2009년 기혼여성 비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372	.674	.040	...	...

그 외의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면,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52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해서도 결혼관의 경로계수가 0.063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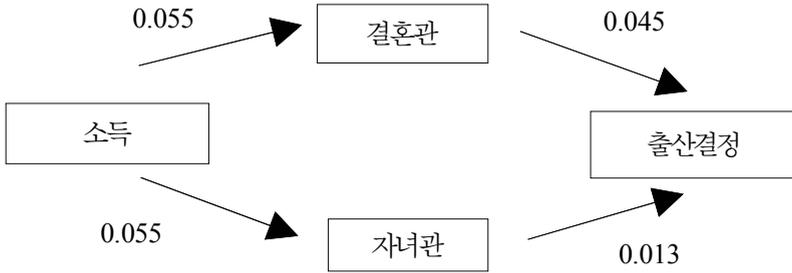
#### 라.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경로분석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관찰변수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연령,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효과가 -0.482,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효과는 0.035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계획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간접효과를 보면,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효과(0.055)와 결혼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045)의 곱인 0.0025와 소득의 자녀관에 대한 직접효과(0.055)와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효과(0.013)의 곱인 0.0007을 합한 0.003(=(0.0025)+(0.0007))이 총간접효과로 해석되어진다. 소득의 출산결정에 대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소득은 추가출산을 결정하는데 긍정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효과만을 보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치관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는 이처럼 정(+)의 인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연령의 경우는 직접적 인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의 경우 부(-)의 인과효과를 가져 연

령이 높을수록 추가출산 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1]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소득과 출산결정의 총간접효과



<표 6-30>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55	.000	.000	3.014	***
자녀관	← 소득	.055	.000	.000	3.002	***
결혼관	← 연령	-.007	-.001	.003	-.360	.719
자녀관	← 연령	-.008	-.001	.002	-.440	.660
결혼관	← 교육수준	.061	.070	.021	3.264	***
자녀관	← 교육수준	-.042	-.032	.015	-2.199	***
출산결정	← 소득	.016	.000	.000	.982	.326
출산결정	← 연령	-.482	-.053	.002	-30.472	***
출산결정	← 교육수준	.035	.029	.014	2.129	***
출산결정	← 결혼관	.045	.033	.011	2.989	***
출산결정	← 자녀관	.013	.014	.016	.878	.380

주: \*\*\* p<.05인.

그 밖의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로는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55, 교육수준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61로 나타났다. 자녀관에 대해서는 소득이 0.055, 교육수준이 -0.042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효과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가치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결정에 대해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이 인과효과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각각 -0.482, 0.035, 0.045였다. 연령의 경우 출산결정에 있어서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결혼관의 경우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본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출산 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 달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만이 추가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1〉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42	.000	-.042
결혼관 ← 교육수준	.061	.000	.061
출산결정 ← 교육수준	.035	.002	.037
자녀관 ← 연령	-.008	.000	-.008
결혼관 ← 연령	-.007	.000	-.007
출산결정 ← 연령	-.482	.000	-.482
자녀관 ← 소득	.055	.000	.055
결혼관 ← 소득	.055	.000	.055
출산결정 ← 소득	.016	.003	.019
출산결정 ← 자녀관	.013	.000	.013
출산결정 ← 결혼관	.045	.000	.045

〈표 6-32〉 20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109	.657	.008	...	...

#### 마.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경로분석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관찰변수들 중 연령(-0.543)만이 출산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접효과의 경우 출산관련 의식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한 인과효과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관찰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면 소득과 교육수준의 경로계수가 각각 0.082, 0.065로 결혼관에 인과적 영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녀관에도 소득(0.099)과 교육수준(-0.056)이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출산결정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미치는 가치관은 결혼관(0.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3〉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82	.000	.000	3.068	***
자녀관	← 소득	.099	.000	.000	3.696	***
결혼관	← 연령	-.001	.000	.004	-.037	.971
자녀관	← 연령	.000	.000	.003	.000	1.000
결혼관	← 교육수준	.065	.069	.030	2.303	***
자녀관	← 교육수준	-.056	-.041	.021	-1.995	***
출산결정	← 소득	.028	.000	.000	1.247	.212
출산결정	← 연령	-.543	-.059	.002	-24.685	***
출산결정	← 교육수준	.022	.016	.018	.934	.350
출산결정	← 결혼관	.044	.031	.014	2.111	***
출산결정	← 자녀관	.000	.000	.021	.000	1.000

주: \*\*\* p<.05임.

〈표 6-34〉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56	.000	-.056
결혼관 ← 교육수준	.065	.000	.065
출산결정 ← 교육수준	.022	.003	.025
자녀관 ← 연령	.000	.000	.000
결혼관 ← 연령	-.001	.000	-.001
출산결정 ← 연령	-.543	.000	-.543
자녀관 ← 소득	.099	.000	.099
결혼관 ← 소득	.082	.000	.082
출산결정 ← 소득	.028	.004	.032
출산결정 ← 자녀관	.000	.000	.000
출산결정 ← 결혼관	.044	.000	.044

〈표 6-35〉 2005년 기혼여성 취업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163	.962	.186	...	...

#### 바.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 집단의 경로분석

연령, 교육수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각각 -0.430, 0.05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간접효과의 경우,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즉, 소득, 연령, 교육수준의 관찰변수들이 가치관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의 유의미한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면, 소득의 결혼관에 대한 인과효과가 0.053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다른 인구사회학적 관찰변수들의 가치관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집단은 자녀관 결혼관 모두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기혼집단에서는 결혼관만이 추가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 집단에서는 결혼관이 출산결정에 대해 0.050의 정(+)의 직접적 인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추가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36〉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 집단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혼관	← 소득	.053	.000	.000	2.059	***
자녀관	← 소득	.017	.000	.000	.655	.512
결혼관	← 연령	.004	.001	.004	.153	.878
자녀관	← 연령	-.004	.000	.002	-.143	.886
결혼관	← 교육수준	.044	.054	.031	1.730	.084
자녀관	← 교육수준	-.031	-.026	.021	-1.230	.219
출산결정	← 소득	-.026	.000	.000	-1.141	.254
출산결정	← 연령	-.430	-.048	.003	-19.278	***
출산결정	← 교육수준	.050	.048	.022	2.212	***
출산결정	← 결혼관	.050	.039	.016	2.363	***
출산결정	← 자녀관	.025	.028	.024	1.159	.246

주: \*\*\* p<.05임.

〈표 6-37〉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 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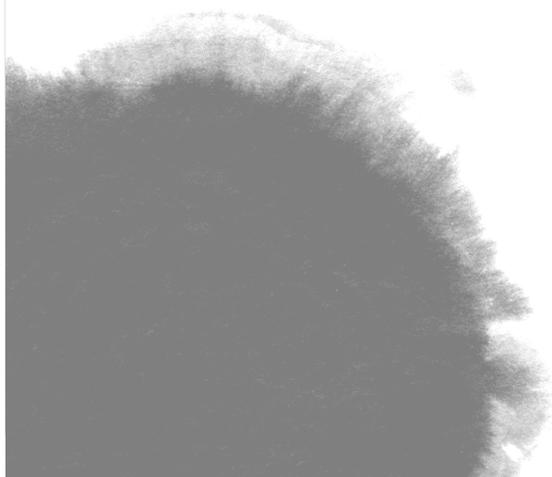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인과효과(A+B)
자녀관 ← 교육수준	-.031	.000	-.031
결혼관 ← 교육수준	.044	.000	.044
출산결정 ← 교육수준	.050	.001	.051
자녀관 ← 연령	-.004	.000	-.004
결혼관 ← 연령	.004	.000	.004
출산결정 ← 연령	-.430	.000	-.430
자녀관 ← 소득	.017	.000	.017
결혼관 ← 소득	.053	.000	.053
출산결정 ← 소득	-.026	.003	-.023
출산결정 ← 자녀관	.025	.000	.025
출산결정 ← 결혼관	.050	.000	.050

〈표 6-38〉 2005년 기혼여성 비취업 집단의 간접효과의 유의성(p값)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자녀관	결혼관
자녀관	...	...	...	...	...
결혼관	...	...	...	...	...
출산결정	.490	.931	.073	...	...

07

결론





## 제7장 결론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매우 급속하고도 중요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경험해 왔다.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 생태구조의 도시화, 계층구조의 평등화 등 ‘근대화’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것이다<sup>27)</sup>.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은 기존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전통적 가치와 ‘근대화’로 인하여 자리 잡기 시작한 가치, 예를 들면, 개인주의, 평등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등과 대립적인 갈등을 일으켰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체계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 및 평등주의가 강화되어 가치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긴 하였지만, 전통적 가치관, 예를 들면, 권위주의 혹은 가족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여전히 한국사회의 정치문화, 가족 내의 인간관계, 직장 내의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가치로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에 출산은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생존, 즉,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로 여겨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출산은 더 이상 반드시 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아닌, 자녀의 질적 가치를 고려한 개인 혹은 부부의 선택이 되었다. 한 사회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과거처럼 국가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여러 대안 중 어떤 대

27) 임희섭(1980), “한국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론』,에서 재인용.

안을 선택하는기는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행해왔던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혹은 경제적 변수들의 단선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가치’라는 개념의 출산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의 틀에 넣어 가치관이 개인 혹은 부부의 출산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출산관련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5년과 2009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 결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자녀에 대한 가치는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자녀에 대한 가치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혹은 자녀를 가지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미혼자 및 기혼자 비중이 2005년 보다 2009년에는 늘어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현대 한국인들의 개인주의는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개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신수진과 최준식(2002)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인들의 개인주의는 Levy<sup>28)</sup>가 말하는 ‘결격형 개인주의’에 가까운데, 이것은 일종의 무규범 상태에서의 방어기제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 즉, “법과 규범 및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정 속에서 자기와 자기이익을 지키고 추구하려는 이기적 성격의 개인주의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왜곡된 개인주의가 전통적 가족주의와 결합하여 현대 한국인의 개인주의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집단적 개인주의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즉 전통

28) Levy, M. J. (1962), "Some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the problem of modernization in China and Japa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0(3).

적 가족주의에서 매우 중요했던 ‘친족 단위의 집합주의’적인 사회 대신 ‘가족단위의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나타났지만,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개인’보다는 여전히 ‘가족’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출산관련 의식의 출산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미혼자전체, 미혼여성, 미혼남성, 기혼자전체, 취업기혼여성, 비취업기혼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혼자의 경우 2005년에 결혼관과 자녀관을 매개로 하여 출산결정에 인과적 효과가 있는 집단은 미혼남성 뿐이었으며 효과를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중에서 연령(-0.033)뿐이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2005년에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의 인과적 영향이 없었던 미혼여성의 경우 2009년에는 연령(-0.043)의 인과적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남성의 경우 모든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관찰변수, 즉, 연령(-0.059), 교육수준(0.016), 소득(0.019)이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를 출산결정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가치관변수의 출산결정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이 보다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혼여성의 경우 2009년 비취업기혼여성 집단과 2005년 기혼여성 전체 집단의 소득(각각 -0.003과 0.003) 이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관과 자녀관의 출산관련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2005년과 2009년 기간 동안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결혼관과 자녀관의 출산결정에 대한 직접적 인과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결혼관련 가치관은, 예상했던 바대로, 보다 많은 이상적인 자녀수 혹은 추가 출산 자녀수의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치관 요인과 가치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집단을 살펴보면 미혼자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지만, 기혼자의 경우 기혼남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의 한계점이 있었다. 2009년 분석결과에서 미혼남성의 출산관련 의식을 매개로한 출산결정에 대한 두드러진 변화로 미루어보아 기혼남성의 경우도 그러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혼관과 자녀관만을 고려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가치관 변수를 다룬 분석 등을 향후에 실시하여 가치관 요인의 출산결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추가출산 자녀수를 출산결정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출산 순위를 통제하는 등의 기출산 자녀수를 고려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경우 가치관을 매개로 한 인과관계가 미혼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미혼자, 특히 남성의 경우 가치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음을 발견한 바, 그들의 결혼연령을 낮추고 결혼 후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어린 시절부터의 체계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청소년기로 보면서, 세대 차이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질적으로 다른 성장 배경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박재홍, 1999;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이것은 Mannheim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는 "각 세대의 의식의 차이를 '경험 성층화 (stratification of experi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어린 시절(소년기)의 경험과 인상은 경험 목록의 가장 밑에 위치하며 그러한 기층 경험 위에 그 이후의 경험들이 선서에 따라 차곡차곡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년기의 기층경험인데, 그 이후의 경험들이 그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경험들은 시간

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기층경험과의 관련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며, 이러한 경험 성층화가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인간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인구교육, 심화된 성교육(평등에 초점을 둔 성교육), 가족의 의미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교육을 보다 체계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학교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경우 6개 학년의 학생들에게 공히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데도 실패할 뿐더러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가치교육과 더불어 자녀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노동력으로서의 자녀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산업화 이후 부모들은 자녀의 질적측면을 중요시 여기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을 갖대로 하여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가치가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린 출산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출산을 기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가 느끼는 인생의 가치, 행복감과 기쁨 등이 다른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에 앞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건강하고 균형된 한국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그 의미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와 교육비용에 대한 사회 분담 등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홍보나 캠페인을 통하여 자녀가치를 높이 여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곧 자녀를 둔 부모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배려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 및 자녀 양육 때문에 겪게 되는 여성들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의 많은 문제들이 다른 저출산 정책들과 맞물려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고범서(1992). **가치관 연구**. 나남.
-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pp.89-106.
- 공미혜(1992).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가족학논집**, 4. pp.1-20.
- 공미혜(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여대 여성 연구** 4. pp.27-47.
- 공선희·손승영·안선태(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 권용은·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유아교육**, 13(1), pp.211-226.
- 김경신(1998a).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3(2). pp.43-65.
- 김경신(1998b).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pp.145-160.
- 김경신(2010). 한국여성과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연구: 코호트 및 개인사 분석을 통한 지속과 변화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pp.271-296.
- 김계수(2007). **AMOS 7.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 김계수(2009). **잠재성장 모델링과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한나라아카데미.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두섭·강남준(2000). **회귀분석 -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사.
- 김대업(2008). **AMOS A to Z**. 학현사.
- 김만흠(1999). 전화기의 한국정치와 지역사회. **참여시대 지방의 발견**. 금문서적.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p.182.
- 김명자(1990).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24. pp.139-166.
- 김민식(2010). **저출산의 배경**. 에세이퍼블리싱.
- 김세곤(2002). 일본에 있어서 소자화현상의 현황과 그에 대한 보육정책을 통한 지원대책 방안.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6(1). pp.36-50.
- 김순옥·류점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 논문집. pp.73-101.
- 김승권(2004). 한국사회 출산을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2004년 한국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저출산시대의 신인구정책**, 한국인구학회.
- 김승권 외(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pp.109-142.
- 김준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길(1995).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 김태길(2004). **윤리문제의 이론과 현실**. 철학과 현실사.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Personal Value Changes and bw*

- Fertility. **보건복지포럼**, pp.16-24.
- 김태헌 외(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김현숙·류현덕·민희철(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김현옥(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가족과 문화**, 14(1), pp.3-30.
- 김혜선·김영희(1983). 배우자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pp.107-125.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박수미(2005). 가족내 성평등(Gender Equity)과 저출산: Low Fertility and Gender Equity in the Family. **보건복지포럼**, pp.36-44.
- 박숙자(2003).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성연구** 8, pp.121-145.
- 박순희·함귀옥(1986). 남녀 대학생들의 데이트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상명여대 가정교육학회 논문집**. pp.20-28.
- 박인덕(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속대 아세아 여성연구 제12집** pp.151-174.
- 박재간·임춘식(1983).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pp.129-147.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pp.257-296.
- 박혜인(1988). 한국농촌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분석. **여성문제 연구 16집**. 효성여대.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III. 교문사**.
-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도서출판 청람.

- 배병렬(2009). **AMOS 7.0 구조방정식 모델링 - 원리와 실제**. 청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12.14).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서울대 국제대학원(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 서문희 외(2004).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4.
-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 서병숙·김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pp.127-138.
- 선향성(1993). **노동문화연구: 노동의 가치와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신수진·최준식(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이산재단 연구총서 제108집**, 집문당.
-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 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pp.1-14.
- 송시열(1986). **계녀서**. 정음사.
- 안병철·임인숙·정기선·이장원(2001). **경제 위기와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pp.167-181.
-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옥선화(198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성심여대 논문집** 11, pp.88-90.
- 옥선화(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II**. 교문사.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통권 85호), pp.241~258.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pp.25-35.
-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 pp.127-150.
-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1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광규(1989).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이기중(2005). **구조방정식 모형-인과성, 통계분석 및 추론** 국민대 출판부.
- 이덕무(1993). **사소절**. 명문당.
- 이동원(2002). 한국가족의 질적 변화: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7.
- 이미숙(1995). 현대 한국가족의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와 청소년 발달간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pp.1-10.
-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가족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생활과학연구논집** 13, pp.87-105.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호** pp.5-17.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95-140.
- 이삼식 외(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학식·임지훈(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법문사.
- 이현승·김현진(2003). **늘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 이연주(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p.109.
- 이정덕·김순옥·박희식·김경신(1999). 한국가족윤리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pp.23-39.
- 이정숙(1985).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

3집, pp.367-383.

이정우·오연옥(1995). 근로청소년(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pp.25-38.

이효재(1978). 여성과 사회구조. **여성학신론**. 이회여대 출판부.

이효재(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까치.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가족관계의 발달**. 박영사.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pp.305-323.

정영숙·이선자(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 p.25.

정운영·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 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pp.115~139

조남훈·이삼식·정경희·선우덕 외(2008).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신규과제 발굴**.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미숙·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pp.67-89.

조영숙(1980). 전문대학 여대생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농전 논문집** 17, pp.311-332.

조은(2006). 재생산 정치와 한국페미니즘의 딜레마. 저출산 ‘위기’ 담론과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6-12, pp.156-175.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 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pp.79-90.

최재석(1990).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한국인구보건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규석(2003).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한지숙·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pp.143-166.

- 황응연(1975). 여대생의 가치관 조사. **학생생활연구** 11, pp.88-112.
- 독립신문(1898.5.26). **논설**.
- 동아일보(1926). **남편십계, 부부불화 16개조**.
- 동아일보(1927). **충명한 아내의 9가지 비결**.
-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_\_\_\_\_(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 관계부처 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 (試案) 주요내용(공청회 자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08>)
- 통계청. KOSIS.
- 데이비드 그레이버 (서정은 옮김, 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그린비.
- Kline(이현숙·김수잔·전수현 역, 2005). **구조방정식 모형-원리와 적용**. 학지사.
- Max Weber(전성우 역, 2002).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나남출판사.
- 「高麗史」.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 社會保障審議會人口部會 編(2002). **將來來人口推計の視点**. ぎょうせい.
- 「三國史記」. 景仁文化社 影印本.
- 「三國遺事」. 李東墩 校勘(민족문화추진회 影印本).
- 「三國遺事」. **한국불교전서본**. 동국대 출판부.
- 野澤正子 著. 장영인 역(1995). **이등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 Adsera, A.(2005). Differences in Desired and Actual Fertilit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Spanish Case. *IZA DP No.1584*
- Alwin, D. F. and Hauser, R. M.(1975). The Decomposition of Effects Path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0, No.1*. pp. 37-47.
- Kohlmann, A.(2002). *Fertility Intentions in a Cross-Cultural View*:

*The Value of Children Reconsidere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Arbuckle, J. L.(2007). *Amos 16.0 User's Guide.*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J. & Wu, T.S.(1975). *The Values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1.*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Atoh, M.(2001). Very Low Fertility in Japan and Value Change Hypothese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No.10. pp.1-21.

Becker, G. S. and Lewis, H.G.(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Chicago University Press.

Becker, G. S. and Barro, R. J.(1988). A Reformulation of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3, No.1.* pp.1-25.

Becker, G. S., Duesenberry, S. J. , Okun B.(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ongaarts, J.(2001). Fertility And Reproductive Preferences in Post - 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7.* pp.260-281.

Chesnais, J. C.(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pp.729-739.

d'Addio, A.C. and d'Ercole, M.M.(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Easterlin, R.A.(1975). An Economic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6, No.3.* pp.54~63.

- Friedman, D., Hechter, M., Kanazawa, S.(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Vol.31, No3.* pp.375-401.
- Freedman, R., Freedman, D. S., Thornton, A. D.(1980). Changes in Fertility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between 1962 and 1977: Their Relation to Final Parity. *Demography, Vol.17, No.4,* pp.365-378.
- Hoffman, S. D.(2009). The Changing Impact of Marriage and Children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Monthly Labor Review.*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gitcibasi, C.(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 A View from the Other Sid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427-440.
- \_\_\_\_\_.(2001). Theory Pertaining to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21-23.* March 2001, Tokyo.
- Retherford, R., Ogawa, N., Sakamoto, S.(1996). Values and Fertility Change in Japan. *Population Studies, 50(1),* pp.5-26.
- Retherford, R. D., Ogawa, N., and Sakamoto, S.(1996). Values Fertility Change in Japan. *Population Studies.* pp.5-25.
- Robinson, W. C.(1997).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Over Three Decades. *Population Studies, 51(1).* pp.63-74.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Fields, J.M.(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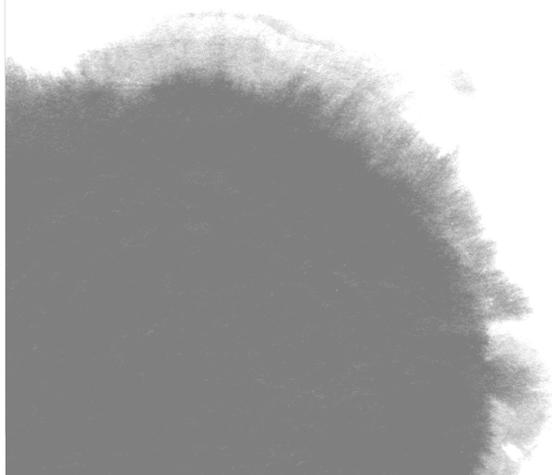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1, No.3. pp.790~799.*

Van de Kaa, D. J.(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Washington, Population Reference  
Bureau. pp.1-59.

Van de Kaa, D. J.(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7.* pp.290-331.

OECD, *Family Database.*

부 록





# 부록

## 【 부 록 】 모형의 적합도 및 상관관계

### 1. 모형의 적합도 (GFI)

집단명	GFI
05년 기혼여성 전체집단	.992
05년 기혼 비취업 여성집단	.990
05년 기혼 취업 여성집단	.995
05년 미혼 남성집단	.973
05년 미혼 여성집단	.977
05년 미혼 전체집단	.972
09년 기혼여성 전체집단	.992
09년 기혼 비취업 여성집단	.992
09년 기혼 취업 여성집단	.989
09년 미혼 남성집단	.990
09년 미혼 여성집단	.985
09년 미혼 전체집단	.930

## 2. 집단별 상관관계

### 가. 2009년 미혼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468(**)	.364(**)	-.033	-.100(**)	-.016
	Sig. (2-tailed)		.000	.000	.075	.000	.391
	N	2968	2968	2968	2968	2968	2968
연령	Pearson Correlation	.468(**)	1	.233(**)	-.161(**)	-.099(**)	-.092(**)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N	2968	2968	2968	2968	2968	2968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364(**)	.233(**)	1	.020	-.026	-.027
	Sig. (2-tailed)	.000	.000		.266	.164	.142
	N	2968	2968	2968	2968	2968	2968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33	-.161(**)	.020	1	.216(**)	.205(**)
	Sig. (2-tailed)	.075	.000	.266		.000	.000
	N	2968	2968	2968	2968	2968	2968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100(**)	-.099(**)	-.026	.216(**)	1	.160(**)
	Sig. (2-tailed)	.000	.000	.164	.000		.000
	N	2968	2968	2968	2968	2968	2968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6	-.092(**)	-.027	.205(**)	.160(**)	1
	Sig. (2-tailed)	.391	.000	.142	.000	.000	
	N	2968	2968	2968	2968	2968	2968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나. 2009년 미혼 여성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493(**)	.413(**)	-.051	-.165(**)	-.057(*)
	Sig. (2-tailed)		.000	.000	.056	.000	.034
	N	1391	1391	1391	1391	1391	1391
연령	Pearson Correlation	.493(**)	1	.290(**)	-.176(**)	-.183(**)	-.095(**)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N	1391	1391	1391	1391	1391	1391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413(**)	.290(**)	1	.004	-.042	-.034
	Sig. (2-tailed)	.000	.000		.883	.117	.210
	N	1391	1391	1391	1391	1391	1391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51	-.176(**)	.004	1	.196(**)	.226(**)
	Sig. (2-tailed)	.056	.000	.883		.000	.000
	N	1391	1391	1391	1391	1391	1391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165(**)	-.183(**)	-.042	.196(**)	1	.206(**)
	Sig. (2-tailed)	.000	.000	.117	.000		.000
	N	1391	1391	1391	1391	1391	1391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57(*)	-.095(**)	-.034	.226(**)	.206(**)	1
	Sig. (2-tailed)	.034	.000	.210	.000	.000	
	N	1391	1391	1391	1391	1391	139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다. 2009년 미혼 남성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456(**)	.329(**)	-.020	-.047	.017
	Sig. (2-tailed)		.000	.000	.417	.064	.501
	N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연령	Pearson Correlation	.456(**)	1	.220(**)	-.184(**)	-.049	-.092(**)
	Sig. (2-tailed)	.000		.000	.000	.051	.000
	N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329(**)	.220(**)	1	.051(*)	-.002	-.021
	Sig. (2-tailed)	.000	.000		.043	.924	.394
	N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20	-.184(**)	.051(*)	1	.226(**)	.189(**)
	Sig. (2-tailed)	.417	.000	.043		.000	.000
	N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47	-.049	-.002	.226(**)	1	.119(**)
	Sig. (2-tailed)	.064	.051	.924	.000		.000
	N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7	-.092(**)	-.021	.189(**)	.119(**)	1
	Sig. (2-tailed)	.501	.000	.394	.000	.000	
	N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라. 2005년 미혼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384(**)	.275(**)	.008	-.022	-.018
	Sig. (2-tailed)		.000	.000	.677	.251	.351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연령	Pearson Correlation	.384(**)	1	.102(**)	-.099(**)	-.061(**)	-.035
	Sig. (2-tailed)	.000		.000	.000	.002	.076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275(**)	.102(**)	1	.005	-.024	-.010
	Sig. (2-tailed)	.000	.000		.783	.217	.595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08	-.099(**)	.005	1	.119(**)	.293(**)
	Sig. (2-tailed)	.677	.000	.783		.000	.000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22	-.061(**)	-.024	.119(**)	1	.207(**)
	Sig. (2-tailed)	.251	.002	.217	.000		.000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8	-.035	-.010	.293(**)	.207(**)	1
	Sig. (2-tailed)	.351	.076	.595	.000	.000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마. 2005년 미혼 여성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361(**)	.320(**)	-.029	-.071(*)	-.016
	Sig. (2-tailed)		.000	.000	.322	.015	.577
	N	1173	1173	1173	1173	1173	1173
연령	Pearson Correlation	.361(**)	1	.208(**)	-.133(**)	-.133(**)	-.048
	Sig. (2-tailed)	.000		.000	.000	.000	.102
	N	1173	1173	1173	1173	1173	1173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320(**)	.208(**)	1	.035	-.050	.019
	Sig. (2-tailed)	.000	.000		.226	.085	.512
	N	1173	1173	1173	1173	1173	1173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29	-.133(**)	.035	1	.079(**)	.270(**)
	Sig. (2-tailed)	.322	.000	.226		.007	.000
	N	1173	1173	1173	1173	1173	1173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71(*)	-.133(**)	-.050	.079(**)	1	.196(**)
	Sig. (2-tailed)	.015	.000	.085	.007		.000
	N	1173	1173	1173	1173	1173	1173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6	-.048	.019	.270(**)	.196(**)	1
	Sig. (2-tailed)	.577	.102	.512	.000	.000	
	N	1173	1173	1173	1173	1173	117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바. 2005년 미혼 남성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393(**)	.274(**)	.007	.010	-.028
	Sig. (2-tailed)		.000	.000	.793	.710	.285
	N	1446	1446	1446	1446	1446	1446
연령	Pearson Correlation	.393(**)	1	.099(**)	-.176(**)	-.009	-.058(*)
	Sig. (2-tailed)	.000		.000	.000	.737	.027
	N	1446	1446	1446	1446	1446	1446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274(**)	.099(**)	1	.060(*)	.000	-.008
	Sig. (2-tailed)	.000	.000		.022	.997	.749
	N	1446	1446	1446	1446	1446	1446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07	-.176(**)	.060(*)	1	.157(**)	.292(**)
	Sig. (2-tailed)	.793	.000	.022		.000	.000
	N	1446	1446	1446	1446	1446	1446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10	-.009	.000	.157(**)	1	.217(**)
	Sig. (2-tailed)	.710	.737	.997	.000		.000
	N	1446	1446	1446	1446	1446	1446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28	-.058(*)	-.008	.292(**)	.217(**)	1
	Sig. (2-tailed)	.285	.027	.749	.000	.000	
	N	1446	1446	1446	1446	1446	1446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사. 2009년 기혼 여성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127(**)	.185(**)	.050(**)	-.041(*)	-.013
	Sig. (2-tailed)		.000	.000	.006	.024	.465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연령	Pearson Correlation	.127(**)	1	-.180(**)	.024	-.413(**)	-.015
	Sig. (2-tailed)	.000		.000	.185	.000	.422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185(**)	-.180(**)	1	-.013	.097(**)	-.002
	Sig. (2-tailed)	.000	.000		.484	.000	.920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50(**)	.024	-.013	1	.056(**)	.155(**)
	Sig. (2-tailed)	.006	.185	.484		.002	.000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41(*)	-.413(**)	.097(**)	.056(**)	1	.039(*)
	Sig. (2-tailed)	.024	.000	.000	.002		.034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3	-.015	-.002	.155(**)	.039(*)	1
	Sig. (2-tailed)	.465	.422	.920	.000	.034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아. 2009년 기혼 취업 여성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050	.248(**)	.058(*)	.017	-.013
	Sig. (2-tailed)		.084	.000	.045	.570	.645
	N	1181	1181	1181	1181	1181	1181
연령	Pearson Correlation	-.050	1	-.287(**)	.050	-.507(**)	.038
	Sig. (2-tailed)	.084		.000	.084	.000	.196
	N	1181	1181	1181	1181	1181	1181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248(**)	-.287(**)	1	.011	.185(**)	-.023
	Sig. (2-tailed)	.000	.000		.696	.000	.426
	N	1181	1181	1181	1181	1181	1181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58(*)	.050	.011	1	.010	.180(**)
	Sig. (2-tailed)	.045	.084	.696		.724	.000
	N	1181	1181	1181	1181	1181	1181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17	-.507(**)	.185(**)	.010	1	-.029
	Sig. (2-tailed)	.570	.000	.000	.724		.318
	N	1181	1181	1181	1181	1181	1181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3	.038	-.023	.180(**)	-.029	1
	Sig. (2-tailed)	.645	.196	.426	.000	.318	
	N	1181	1181	1181	1181	1181	118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자. 2009년 기혼 비취업 여성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127(**)	.185(**)	.050(**)	-.041(*)	-.013
	Sig. (2-tailed)		.000	.000	.006	.024	.465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연령	Pearson Correlation	.127(**)	1	-.180(**)	.024	-.413(**)	-.015
	Sig. (2-tailed)	.000		.000	.185	.000	.422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185(**)	-.180(**)	1	-.013	.097(**)	-.002
	Sig. (2-tailed)	.000	.000		.484	.000	.920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50(**)	.024	-.013	1	.056(**)	.155(**)
	Sig. (2-tailed)	.006	.185	.484		.002	.000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41(*)	-.413(**)	.097(**)	.056(**)	1	.039(*)
	Sig. (2-tailed)	.024	.000	.000	.002		.034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13	-.015	-.002	.155(**)	.039(*)	1
	Sig. (2-tailed)	.465	.422	.920	.000	.034	
	N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차. 2005년 기혼 여성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128(**)	.306(**)	.073(**)	-.031	.042(*)
	Sig. (2-tailed)		.000	.000	.000	.068	.015
	N	3395	3395	3395	3395	3395	3395
연령	Pearson Correlation	.128(**)	1	-.248(**)	-.015	-.489(**)	.009
	Sig. (2-tailed)	.000		.000	.394	.000	.583
	N	3395	3395	3395	3395	3395	3395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306(**)	-.248(**)	1	.080(**)	.163(**)	-.023
	Sig. (2-tailed)	.000	.000		.000	.000	.187
	N	3395	3395	3395	3395	3395	3395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73(**)	-.015	.080(**)	1	.058(**)	.151(**)
	Sig. (2-tailed)	.000	.394	.000		.001	.000
	N	3395	3395	3395	3395	3395	3395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31	-.489(**)	.163(**)	.058(**)	1	.015
	Sig. (2-tailed)	.068	.000	.000	.001		.375
	N	3395	3395	3395	3395	3395	3395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42(*)	.009	-.023	.151(**)	.015	1
	Sig. (2-tailed)	.015	.583	.187	.000	.375	
	N	3395	3395	3395	3395	3395	339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카. 2005년 기혼 취업여성 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013	.362(**)	.105(**)	.048	.079(**)
	Sig. (2-tailed)		.595	.000	.000	.054	.002
	N	1613	1613	1613	1613	1613	1613
연령	Pearson Correlation	-.013	1	-.316(**)	-.023	-.551(**)	.017
	Sig. (2-tailed)	.595		.000	.365	.000	.508
	N	1613	1613	1613	1613	1613	1613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362(**)	-.316(**)	1	.095(**)	.208(**)	-.021
	Sig. (2-tailed)	.000	.000		.000	.000	.410
	N	1613	1613	1613	1613	1613	1613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105(**)	-.023	.095(**)	1	.061(*)	.129(**)
	Sig. (2-tailed)	.000	.365	.000		.014	.000
	N	1613	1613	1613	1613	1613	1613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48	-.551(**)	.208(**)	.061(*)	1	-.002
	Sig. (2-tailed)	.054	.000	.000	.014		.951
	N	1613	1613	1613	1613	1613	1613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79(**)	.017	-.021	.129(**)	-.002	1
	Sig. (2-tailed)	.002	.508	.410	.000	.951	
	N	1613	1613	1613	1613	1613	161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타. 2005년 기혼 비취업 여성집단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관	출산결정	자녀관
소득	Pearson Correlation	1	.205(**)	.287(**)	.066(**)	-.096(**)	.007
	Sig. (2-tailed)		.000	.000	.005	.000	.765
	N	1782	1782	1782	1782	1782	1782
연령	Pearson Correlation	.205(**)	1	-.168(**)	.007	-.443(**)	.005
	Sig. (2-tailed)	.000		.000	.760	.000	.829
	N	1782	1782	1782	1782	1782	1782
교육수준	Pearson Correlation	.287(**)	-.168(**)	1	.058(*)	.117(**)	-.026
	Sig. (2-tailed)	.000	.000		.014	.000	.274
	N	1782	1782	1782	1782	1782	1782
결혼관	Pearson Correlation	.066(**)	.007	.058(*)	1	.052(*)	.172(**)
	Sig. (2-tailed)	.005	.760	.014		.027	.000
	N	1782	1782	1782	1782	1782	1782
출산결정	Pearson Correlation	-.096(**)	-.443(**)	.117(**)	.052(*)	1	.029
	Sig. (2-tailed)	.000	.000	.000	.027		.213
	N	1782	1782	1782	1782	1782	1782
자녀관	Pearson Correlation	.007	.005	-.026	.172(**)	.029	1
	Sig. (2-tailed)	.765	.829	.274	.000	.213	
	N	1782	1782	1782	1782	1782	1782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Research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가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미정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
연구 20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세대 육상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지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자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2010년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장영석	10,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과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기차와 출산을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외부)	6,000
연구 2010-30-8	차여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에이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20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
연구 20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0-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이소정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미정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지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
연구 2010-35	취약위기와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근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권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중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지원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지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상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